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和合
마성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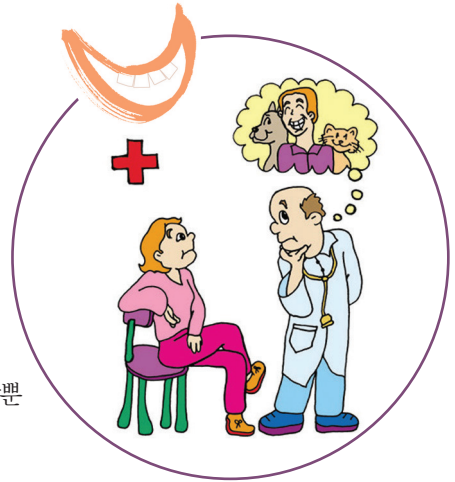
뉴스잡지
134호



의사를 잘못 찾아오셨군요

청하이 무상사/ 1999. 10. 16. 미국 플로리다 (원문 영어)

병원을 찾은 한 여자에게 의사가 물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어디가 불편하시지요?” “그게 바로 선생님이 찾아내실 일이 아닌가요?” 여자가 이렇게 대꾸하자 의사가 말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럼 수의사인 제 친구에게 오라고 해야겠군요. 제가 알기로는 환자에게 시시콜콜 묻지 않아도 진단할 수 있는 건 그 사람뿐이니깐요!”



개도 알아듣는 러시아어

청하이 무상사/ 2001. 12. 28. 미국 플로리다 (원문 영어)

어떤 러시아어 강사가 첫 수업 시간에 개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가 개한테 “앉아”, “가만있어”, “이리 와”, “저리 가”, “굴러” 하고 여러 가지를 시키자 개는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이에 강사가 말했지요. “자, 보십시오. 러시아어는 개도 알아들을 만큼 굉장히 쉽습니다.”

여긴 제 전문이 아닌걸요!

청하이 무상사/ 1999. 10. 4. 미국 플로리다 (원문 영어)

사냥꾼들이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사냥꾼들은 화가 나서 가이드에게 따졌지요. “아니, 뉴욕에서 제일 가는 가이드라더니, 이게 대체 뭐 하는 거요?” 그러자 가이드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머리를 긁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여기는 캐나다인걸요!”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스승님의 농담을 동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주위 분들과 함께 즐기십시오.

<http://www.godsdirectcontact.org/eng/news/134/jk1.htm> (미국)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news/134/jk1.htm> (포모사)
<http://www.godsdirectcontact.net/eng/news/134/jk1.htm> (미국)

앞표지 안 / 스승님의 농담

의사를 잘못 찾아오셨군요/ 개도 알아듣는 러시아어/ 여긴 제 전문이 아닌걸요!

2 스승님 말씀

마야의 함정을 조심하라

4/ 28/ 30 지혜어록

동물은 우리의 친구다/ 모든 중생은 동등하다
이 세상을 만물과 함께 공유하자

5 단제명상

새 시대에 걸맞은 수행 도장

6/ 25 수행일화

소원을 들어 주신 스승님/ 신의 햇불이 되라

7 다채로운 이벤트

몽골/ 미국/ 칠레/ 일본/ 마카오/ 포모사

12 영혼의 고양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비디오 테이프

13 어머니날 특집 기사

사랑하는 성모님께 드리는 축하 카드/
성모의 절대적인 사랑에 천국을 체험하다

23 전 세계 채식식당

미국 오리건

24 사랑의 실천

남아프리카에 아직도 계속 흐르는 스승님의 축복

26 수행의 길목에서

서리 선 행사의 기적

27 이야기 세상

쌀 한 포대가 가져온 무한한 축복

29 신기한 감응

스승님의 사랑이 거친 마음을 제도하다

31 스승님이 해주신 이야기

황금 사슴 - 부처의 전생 이야기

35 감로법어

36 스승님이 말씀하시기를

애완동물을 자신처럼 사랑하라

38 칭하이 무상사 TV 프로그램

39 시

백화림에서 스승님을 그리다

40 동물의 유정(有情) 세계

공평하게 사랑하라/ 떠돌이 개 의료단/ 나의 신기한 동물 친구

43 골라 뽑은 수행문답

아힘사의 확장된 의미 - 동물 친구를 사랑하는 것

44 매체 보도

계간지 유리광 세계 잡지/ 포모사 자유시보

47 관음 웹사이트

48 전세계 연락처

53 센터 이벤트

대한민국 / 오스틴

뒤표지 / 새로 나온 책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책/ DVD



사랑의 선택은 가장 높고 가장 고귀한 선택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아입니다.

~칭하이 무상사~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뉴스잡지 134호

출판일자 : 2002. 11 16.

설립연도 : 1990. 4. 1.

발행처 :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발행인 : Lin Ping Xing

인쇄처 :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대한민국)

TEL : (02) 577-2158,
(031) 772-7250
www.godsdirectcontact.or.kr
chinghai@unitel.co.kr

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는 한국어, 중국어, 영어, 어울락어, 스페인어, 불어, 독어, 태국어, 일본어, 인도네시아어, 포르투갈어 등 전 세계 각 국 언어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마야의 함정을 조심하라

칭하이 무상사/ 1989. 5. 2. 포모사 타이베이 (원문 중국어)

비디오 테이프 No. 76



수행자는 개념이 명확해야 합니다. 그래야 누구에 계도 속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야의 시험에 들 때마다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니 스승의 말 외에는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마야의 함정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런 생각도 없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다면, 자신의 등급을 떨어뜨리고 그들이 여러분보다 낫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 결국 여러분은 그들의 부하가 돼 버립니다.

이 세상에는 거짓 스승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 더 보탠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지만, 여러분처럼 지혜로운 사람들이 속는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자신의 주인이 되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자신의 지혜를 쓰지 않고 아무 말이나 모두 믿는다면, 사람들은 여러분의 지혜 없음과 낮은 수행 등급을 비웃을 것입니다.

또 어떤 식으로든 스승의 일을 돕고 있는 사람들은 자만심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남을 돕는 것은 자기 자신을 돕는 것과 같습니다. 그 일에 자만심을 갖지 않아야 마야에 속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매일 일해 사장에게서 한 달에 천 달러나 만 달러를 받는다고 하면, 이에 자만심을 느끼겠습니까? 사장의 일을 돕는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여길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항상 실수나 하지 않을까, 그 일을 할 만한 능력이 부족한 건

아닐까, 또는 일을 제대로 못 해 해고당하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대중: “예”)

불보살의 일을 도울 때도 그렇게 겸손하고 세심하고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일 좀 도운 게 뭐 그리 대단합니까?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은 공덕을 쌓고 업장을 씻고 불보살이 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공부할 기회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공부할 기회가 생긴 데 감사해야지 자만할 게 어디 있단 말입니까? 자만심이 생기면 곧 마야가 우리를 시험하러 오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불하는 데 조금해해도 또한 마야의 시험에 들 것입니다. 마야가 우리에게 다가와, “너는 이미 성불했다”고 말하겠지요. 마야는 때로 확실하게 중생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언제나 명상 중에 보이는 그런 흐릿한 형상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한 사람을 이용해서 여러분 집의 초인종을 누를 겁니다. “우리는 좋은 친구들입니다. 난 당신이 이미 성불했고 이미 ‘제8세계’에 도달했다는 걸 알아요!” 내가 보기엔 ‘저팔계’인 것 같은데 말이지요! (대중 웃음)

주: 중국어로 제8세계(띠빠스제)와 저팔계(띠빠제)는 발음이 비슷함.

우리 수행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성불하거나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신을 가

르치는 것이라말로 어렵지요! 그러니 먼저 자신을 잘 훈련시켜 명리심을 버리고, 더러운 생각을 정화하십시오. 그런 후에야 다른 사람을 정화할 수 있습니다. 자신도 더러우면서 남을 씻기려고 한다면, 오히려 그들을 오염시킬 뿐입니다. 자신도 흙투성이인 주제에 그들을 씻기려고 한다면, 원래는 그다지 더럽지 않던 이들도 흙투성이가 되거나 옷이 더러워져 결국엔 원래보다 더욱 더럽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중생을 돕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신을 돕는 게 어려운 일이지요. 중국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어렵다.’ 수백, 수천만 명을 이기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돈이나 권력, 언변 등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이기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자신은 속일 수 없기 때문에, 속인다면 죄책감으로 밤에 잠도 못 잘 것입니다. 호법신장이 와서 여러분의 등급을 물으며 다그치겠지요. ‘감히 스승 노릇을 하다니! 어떻게 감히 천인도사(天人道師)라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얼마 후엔 저승사자가 ‘문안’을 드리러 올 겁니다. (스승님과 대중 웃음) 그가 “이제 시간이 됐다!”고 하면 그때는 스승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미 시간이 다해서 저승사자와 함께 가야 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은 스승의 보호를 거부했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돌봐야 합니다. 스승은 억지로 보호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원한다면 보호하겠지만, 원치 않는다면 다시 거둘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른바 ‘수행자’가 많이 있습니다. 신통을 가진 사람도 많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조잡한 힘과 신의 힘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신은 억지로 사람들을 끌어들이지 않습니다. 신이 대지혜와 논리로써 우리의 지혜를 열어 주면, 우리는 자신의 의지로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마야는 온갖 간계와 신통, 압력과 달콤한 속삭임, 속임수 등을 써서 강제로 믿게 만듭니다. 물론 결국에는 이런 속임수에서 깨어나겠지만, 이런 마야의 함정에 빠지는 건 큰 낭비입니다! 쓸데없이 시간을 허비하고 우리의 등급을 떨어뜨리며 상심하게 되어 다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원래 의심하는 마음은 없애기 어려운 법인데 지

금 또 의심이 더해졌으니 정말 힘들게 되지요! 또 일단 떨어진 경지는 다시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수행자들은 순수하고 단순한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함이 어리석음을 뜻하진 않습니다. 순수하고 단순한 마음이란, 다른 사람에 대해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욕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선을 행하고, 남을 편안케 하며, 남을 돕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며, 함부로 다른 사람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 어리석은 마음이란 남의 말은 무엇이든 따르고, 신통이나 경지를 탐하고, 칭찬을 욕심내는 것입니다. 칭찬의 독약은 일단 마셨다 하면 바로 중독되어 판단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말이 논리적인지, 이치에 합당한지, 저 사람이 우리의 찬탄을 받을 만한지, 혹은 그런 사람의 눈을 바라봐도 되는 것인지 판단할 수 없게 됩니다.

왜 그렇게 성급합니까? 판단할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없다면, 아직 스승이 여기에 있으니 스승에게 물어봐도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아직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스승에게 물어보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스승을 무시하고 묻지도 않지요! 스스로 혼란을 자처해 자기들끼리 비밀스럽게 모여 혁명을 일으키려 하니, 정말 우습지도 않습니다! 그리고선 스승이 그 일을 모른다고 생각하지요! ‘망원경’으로 보고 있는 나로서는 정말 가소로운 일입니다! 난장판을 벌여 놓고 신난 아이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마(魔)에게 사로잡힌 건데도 부모가 알지 못한다는 생각에 기뻐하기까지 합니다.

나는 스승의 책임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경고하는 것이지, 여러분의 그런 어린애 같은 놀이에 관여하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 몇 명이 떨어져 나간들 내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신중히 생각해 다른 사람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건지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스승이 아직 이 세상에 있으니, 무슨 의문이 생기면 항상 스승에게 물어보십시오. 만약 스승이 답해 주지 못하거나 명확하게 납득시킬 수 없다면 그때 가서 스스로 결정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스승에게 입문했습니다. 그러니 최소한 여러분에 대한 스승의 책임을 존중해야 합니다. 나 개인을 존경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잊지 말라고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내게는 여러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삼계에서 벗어나도록 해야만 나의 책임이 끝나는데, 도중에 여러분이 나를 저버린다면 나 역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해 우리 둘 다 매우 괴로울 것입니다.

우주에는 우주 나름의 법칙이 있으므로 우리는 아무 것이나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수행의 세계는 매우 위험하므로 우리 멋대로 놀거나 어지럽힐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까지 해치게 되며, 결국 지옥이 우리를 기다릴 겁니다. 데바닷타는 석가모니불의 사촌형이었지만, 석가모니불이 살아 있을 때 그에 맞서 많은 제자들을 빼내 다른 종파를 세웠습니다. 그러곤 석가모니불처럼 이른바 ‘스승’이 되었지요. 그러나 석가모니불은 열반에 든

후 높은 경지에 올라 큰 영광과 영예를 받고 온 우주의 신임을 받으며 과위 또한 점점 높아진 반면, 데바닷타는 죽은 후 어디에 갔는지 압니까? (대중: “불 지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행동에 주의하십시오. 남이 스승노릇을 한다고 자기도 덩달아 스승이 되려고 생각해선 안 됩니다. 스승은 어떤 지위나 직함이 아닙니다. 또한 말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지요. 스승은 온 우주가 인정하는 또 다른 형태의 힘입니다. 스승이 쉽게 말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그렇게 할 수 있으니 스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과자를 광고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사람들에게 과자를 줄 수 있는 건 그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든 과자를 주면서, ‘이 것도 똑같다’라며 속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가짜 과자를 먹고 배탈이 나거나 심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



지혜어록

동물은 우리의 친구다

칭하이 무상사/ 1991. 2. 24. 미국 하버드 대학교 (원문 영어)

비디오 테이프 No. 155

진정으로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따라 살려면, 우리 동물 친구들도 마땅히 이웃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특히나 그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해도 주지 않으니까요. 그들은 우리 삶을 아름답게 해줄 뿐입니다. 매우 사랑스럽고 우리 삶을 생동감 넘치고 다채롭고 즐겁게 만들어 주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잘 보호하고 보살피며 그들의 존재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신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친구로, 너희의 조력자로 이 모든 동물들을 창조했노라.”



필리핀 소식

새 시대에 걸맞은 수행 도장

글 관음사자

최근 마닐라 센터에서 입문식이 있었다. 새로운 탄생의 순간, 새로운 입문자들은 훌륭한 체험을 통해 축복받았으며, 입문식에 참석했던 동수들 역시 기뻐해 주었다. 동수들은 입문식에 참가하기 위해 필리핀 전역에서 찾아왔는데, 그 중 외딴 섬에 살고 있는 이들은 24시간 동안 배를 타고 오기도 했다. 입문식이 끝난 후, 동수들은 이 드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필리핀의 여름 휴양지인 바기오로 자리를 옮겨 선이 행사를 개최하는 한편, 그곳의 한 동수의 집에서 조금 이르긴 하지만 어머니날과 스승님의 생신도 경축했다.

수년 전, 필리핀 정부는 팔라완 섬에 머물던 어울락 난민들을 받아들여 취업의 기회와 자유를 주는 등 관대한 대우를 베풀어 필리핀인의 자비로운 천성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그 중 동수였던 어울락 난민들은 상처를 딛고 새로운 삶을 개척하며 꿈을 이뤄내 어울락인의 뛰어난 국민성뿐만 아니라 불굴의 의지로 수행을 계속해서 얻은 힘과 용기 또한 보여 주었다. 어울락 동수들은 필리핀 전역에 걸쳐 살고 있는데, 그 중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채식식당을 세웠고, 종종 이웃과 친구들을 식당으로 초대해 스승님의 비디오를 보여 주고 무료로

잡지를 나눠 주곤 한다. 수년 전, 스승님은 “조만간 우리는 세속과 영성, 모든 면에서 불을 밝히는 선구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다. 필리핀에 안정적인 거처를 마련하게 된 어울락 동수들은 스승님의 귀중한 가르침을 깊이 깨닫고 실천에 옮기며 말없이 필리핀 곳곳에 영성의 빛을 밝히고 있다.

예전에 미군 기지가 있었던 수빅만에 위치한 싱 사저의 집은 그 전형적인 예이다. 그녀의 집에 들어서면 마치 명상센터에 온 듯한 느낌이 든다. 벽마다 스승님의 법상이 걸려 있고 책장마다 스승님의 경서와 잡지들로 가득 차 있다. 스승님에 대한 싱 사저의 감사의 마음은 그녀를 만나는 순간 더욱 명확해진다. 수년 전 난민 캠프에서 만나왔을 때, 그녀는 운동화를 갖고 다니며 팔아 생계를 유지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커다란 신발 보따리를 짊어지고 산 넘고 물 건너 집집마다 돌아다녀야 했다. 그렇지만 명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항상 활력이 넘쳤다. 그녀의 건강하고 행복해 보이는 발그레한 뺨을 보면, 그녀가 교통사고에서 갓 회복되었다는 것을 누구도 짐작할 수 없을 것이다. 사고 당시 그녀가 타



동수들이 가장 좋아하는 중국 매듭 장식의 스승님 사진들.

고 있었던 차는 말 그대로 깡통처럼 완전히 찌그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저는 스승님의 사랑과 보살핌을 느꼈기에 조금도 두렵지 않았다. 수술도 매우 성공적이어서 상처도 거의 남지 않았다.

이 외 팔라완 섬에 있는 전도유망한 채식식당은 필리핀에 미친 어울락 동수의 긍정적인 힘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또 다른 성공 사례다. 스승님의 보이지 않는 안배 속에 이 채식식당은 수행의 거점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여러 나라에서 온 관광객들과 쉽사리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 팔라완 섬의 아




선이 행사 동안 스승님의 생신을 경축하며 모든 동수들이 기뻐하고 있다.

름다운 경관은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현재까지 북유럽, 남미, 중동, 태국 등 여러 나라에서 찾아온 수많은 여행객들이 이 채식식당을 방문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친절한 서비스를 받았다. 신의 안배 덕분인지, 스승님에 대해 들어 보긴 했어도 수행에 대해 달리 생각해 보지 않았던 많은 방문객들이 이 팔라왕에서 휴가를 보내고 채식식당을 방문하게 되면서 마음을 한층 열고 자연스럽게 스승님의 가르침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했으며, 그 중에는 즉석에서 방편법을 배우는 사람들도 있었다.

채식식당에서 일하는 동수들은 점심 휴식 시간마다 함께 명상하며 힘을 재충전하고 오후 일과를 시작

한다. 그들은 음식이 그토록 맛있는 비법이 바로 스승님의 축복 때문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승님의 가르침을 나누기 위해 시간이 날 때마다 필리핀에서 흔한 삼륜차를 타고 TV와 비디오 플레이어를 갖고 다니면서 스승님의 강연 비디오 테이프를 보여 주는 그들만의 독특한 흥법 활동을 한다. 팔라왕 시장도 ‘평화의 음악으로 하나된 세상’ 비디오를 본 적이 있는데, 동수들에게 자신 역시 그런 음악 행사를 대단히 좋아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바기오 선이 행사는 스승님의 아낌없는 사랑과 축복 속에 동수들의 영혼을 고양시키며 막을 내렸다. 나중에 동수들이 스승님의 TV 프로

그램 방영에 관해 TV 방송국과 라디오 방송국과 접촉한 결과 일이 순조롭게 풀려, 올 5월부터는 필리핀 사람들이 집에서 편안히 스승님의 지혜의 말씀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비디오 시청 시간은 스승님의 가르침과 영성에 대한 갈망이 충족되는 때.




소원을 들어 주신 스승님

썬피 사형/ 캐나다 온타리오 채텀

지난 2001년 플로리다 크리스마스 국제 선사에서 겪은 일이다. 선기간 중 어느 날, 나는 다소 들떠 이런 생각을 했다. ‘아, 스승님을 옆에서 모시고 싶다. 스승님 대신 청소해 드리면 스승님의 수고를 덜 텐데...’ 약간 외로운 마음도 들어 이런 생각도 해봤다. ‘럭키(스승님이 귀여워하시는 개 중 하나)를 돌볼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그러면 내 기분도 풀어질 텐데...’

물론 그런 순간적인 감정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명상하고 오불을 외는 것이란 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난 계속해서 이런 소망을 품고 있었다. 그날 밤, 갑자기 스승님이 당신의 처소로 동수들을 초대하셨다. 아니나 다를까! 스승님 처소에서 내가 처음 한 일은 럭키와 함께 노는 것이었다. 얼마 후, 한 동수가 속이 메스껍다고 해서 나는 그를 화장실로 데려갔다. 화

장실을 사용한 후 좀 어지럽혀져서 욕실을 깨끗이 청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내 두 번째 소원도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날 깨달음을 소원하지 않은 게 천추의 한이었다! 앞으로는 어떤 ‘소원’을 빌게 되면, 그땐 정말 나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에 빠지지 않고 더 고귀하고 희생적인 소망을 생각해 낼 것이다. 이 즐거운 체험을 주신 스승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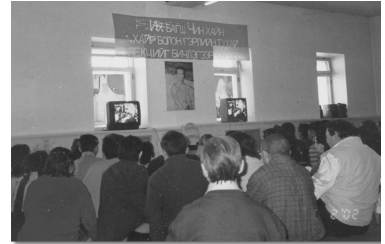
몽골 소식

몽골에 영성의 봄이 도래하다

[울란바토르] 몽골의 봄은 정말 장관이다. 1년 중 이맘때, 비행기 위에서 몽골을 내려다보면 은빛 세계가 끝도 없이 펼쳐져 있다. 해가 동쪽에서 떠오를 때 떨어지는 순백의 눈송이는 햇빛에 반사되어 마치 천상에서 은비를 뿌려 주는 듯한 느낌이 든다. 이런 장엄한 광경은 천상의 모습, 바로 그것이다!


이곳 몽골 사람들은 최근 기공과 요가, 그리고 기타 여러 수행법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으며, 우리 관음법문도 점차적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채식에 받아들여 많은 몽골인들이 이미 채식을 하고 있으며, 방편법도 수행하고 있다. 몇몇 사람들은 명상 중에 강렬한 빛과 화신 스승님을 보고 오색 영롱한 경계를 보기도 한다. 신의 무한한 사랑이 해탈을 갈망하는 이들 영혼을 축복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얼굴 표정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울란바토르 센터는 또한 현지 언론인들의 방문을 자주 받는데, 울란바토르 FM 107 라디오 리포터 한 사람은 인터뷰를 한 후 다음 번 방문에는 방편법을 배우기로 했다. 'Noble Living News'의 편집장 역시 센터를 방문했다가 스승님의 생애에 대해 알게 된 후 깊은 감동을 받았다. 독실한 기독교인인 그녀는 신께 많은 사랑을 갈구했지만, 여전히 다른 사람과 나누기엔 사랑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강한 열망을 느껴 즉석에서 방편법을 배우기로 결정했다. “온몸이 에너지로 충만해지는 듯하고, 강한 빛이 내리비추어 심신이 신의 사랑으로 축복받은 듯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비디오 흥법 활동.

한 느낌”이라고 그녀는 명상을 마친 후 소감을 표현했다. 또 떠나기에 앞서 스승님의 경서를 몽골어로 번역하고 교정하는 일을 돕고 싶다고 제안했다.

방편법을 수행하면서 많은 몽골인들이 자신의 내면에서 빛나는 품성과 진아의 위대함을 깨닫게 되었으며, 항상 신의 무한한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스승님의 인도와 축복에 깊은 감사를 드렸다. 

성공적인 채식 흥법


[바가누르] 바가누르 센터는 최근 지역 사회에 관음법문을 소개하는 세미나를 두 차례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큰 관심을 보이며 깨닫고 나면 삶이 더 아름답게 변하는지 궁금해했다. 세미나 후, 절반 가량의 참석자가 남아 방편법을 배웠다. 동수들은 또한 행사를 위해 맛있는 채식 음식을 넉넉히 준비해 참석자들에게 대접했다. 그 중 13세의 한 사저는 혼자서 요리를 다섯 가지나 만들어 내어, 사람들은 채식요리가 맛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저처럼 어린아이도 능숙하게 만들 정도로 조리가 쉽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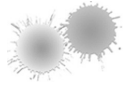


바가누르에서 채식을 통해 사귀 친구들.

을 알게 되었다.

인근 병원의 원장은 환자들에게 채식 식사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이 원장은 자신이 방편법을 수행하고 나서 환자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며, 채식이 우리 몸을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게 만들며 두뇌 또한 맑게 해준다는 걸 확신했다. 또 다른 방편법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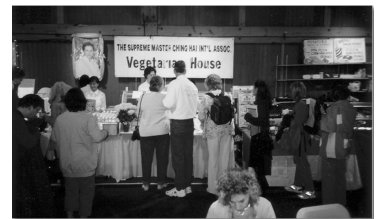
행자인 한 의사 역시 지금부터 환자들에게 채식을 권장하겠다고 애기했다. 채식이 선조들이 즐겨 온 식단이며 장수의 비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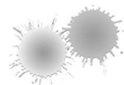
몸 · 마음 · 영혼의 통합 샌프란시스코 뉴에이지 엑스포

[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 동수들과 산호세 '채식의 집' 주방 팀은 2002년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열린 샌프란시스코 뉴에이지 엑스포에 참여해 채식을 장려하고 수행 정보를 알릴 기회를 가졌다. 행사 기간 동안 우리 음식 부스에는 스승님의 비디오에 이끌린 사람들이 끊임없이 줄을 이었다. 방문객들은 맛있는 음식을 즐기면서 스승님과 그 가르침에 대해 열심히 물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TV 및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스승님의 가르침에 대해 알고 있었다.

하루에 세 번이나 음식을 사러 온 한 신사는 부스에서 일하고 있는 동수들 주위에 무지개 빛 후광이 보인다고 했으며, 다른 방문객도 우리 동수들이 사랑과 빛으로 감싸여 있다고 말했다. 그 빛이 부스에 전시된 스승님의 그림에서 나오는 것이란 것을 알고 있던 우리는 그저 미소만 지었다. 엑스포가 끝난 후 며칠 뒤 우리 부스를 찾아왔던 사람들이 산호세 채식식당을 찾아와 입문 신청서를 가져가는 것을 보니 더할 나위 없이 기뻐다. 신께 봉사하며 신의 자녀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을 수 있도



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스승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벽지 작은 마을에도 닿은 스승님의 사랑

[라 세레나] 칠레 북부 안데스 산맥 기슭에 위치한 파이후아노(Paihuano)라는 작은 마을에는 영성을 추구하는 소박한 주민들이 살고 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마을에 수년 전부터 가뭄과 홍수가 잇달아 발생하고 폭풍까

지 휘몰아쳐 거의 모든 지붕들이 날아가 버리고 나무가 뿌리째 뽑히고 전기가 끊어지게 되었다. 그 후




로도 설상가상으로 전례 없는 폭설과 강한 지진이 발생해 마을 전체가 초토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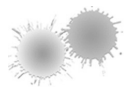
그때 관음사와 동수들은 구호 활동을 시작했다. 사랑하는 스승님은 파이후아노의 사태에 대해 아시고 즉시 재난지역에 구호금을 보내라고 지시하셨으며, 마을 촌장이 대표로 이 돈을 받았다. 스승님의 사랑과 지원으로 파이후아노가 점차 살아나 이제는 전보다 정돈되고 깨끗해졌으며, 마을 사람들 역시 웃음을 되찾게 되었다.

얼마 전 치과의사인 라 세레나의 연락인이 휴가 중이던 파이후아노 치과의사를 대신해 임시로 그곳에 파견되었는데, 그는 마을 사람들의 높은 영적 수준을 감지하고 즉시 그곳에서 영성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세미나는 성공적이었다. 참석자들은 스승님의 가르침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으며, 우리는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방법법을 전수했다.

세미나가 끝날 무렵, 촌장이 나와 마을 주민들을 도와주신 스승님의 자비심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그는 이번 자연재해에 정부와 자선단체들의 지원이 인구 밀집 지역 중심으로 이뤄지고 파이후아노와 같은 벽지

역은 간과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스승님은 그들을 잊지 않고 즉시 도움의 손길을 보내 주셨다고 말했다.

강연을 주관한 연락인 사형은 파이후아노의 치과의사가 돌아오면 라 세레나로 돌아가게 되어 있었다. 그 경우 입문 예정자들은 그대로 방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휴가 중이던 담당 치과의사가 제 날짜에 돌아오지 않아서 사형은 흔쾌히 그 자리를 대신 맡아 가족과 함께 그 마을에서 살며 새로 생긴 센터를 돌보기로 결정했다. 스승님의 끝없는 사랑과 완벽한 안배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02 도쿄 국제 도서 전시회

[도쿄] 스승님의 가르침을 나누기 위해 도쿄 센터 동수들은 2002년 4월 18일에서 21일 사이에 열린 도쿄 국제 도서 전시회에 참가했다. 참가에 앞서 스승님의 일본어판 경서 인쇄 작업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인 덕분에 동수들은 그 어떤 도서 전시회에서보다 풍성하고 다양한 출판물을 전시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큰 용기와 기쁨을 얻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스승님의 예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우리는 부스에 스승님의 그림과 만세등도 전시했다. 영성의 빛을 뿜어내는 이 예술작품들이 전시되자 우리 부스 주위는 부드럽고 상서로운 분위기로 충만해졌다.

전시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우리 부스를 방문했다. 한 방문객은 예전에 이집트에서 스승님의 자비로운 활동에 대해 접한 후 계속 우리 단체를 수소문하고 있었는데, 이날의 우연한 만남에 감격해 마지않았다! 그는 스승님의 놀라운 안배에 깊이 감사드렸다. 또 반신반의하며 견본책자를 받아 갔던 한 방문객은 집에서 읽어 본 후 스승님의 가르침을 정말 좋아하게 되어 다음날엔 친구까지 데리고 다시 찾아오기도 했다.



이 도서전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스승님과 인연을 맺어 조만간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오르길 기원한다. 




마카오 주변 4개 지역 도서 전시회

[마카오] 최근 마카오 동수들은 3월 28일부터 4월 7일까지 11일 간 열린 2002 마카오 주변 4개 지역 도서 전시회에 참가해 스승님의 가르침과 관음법문을 많은 이들에게 알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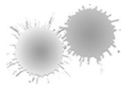
우리 부스는 동수들의 우아한 장식으로 인해 전시장에서 단연 돋보이게 아름다웠으며, 우리는 스승님의 출판물을 전시하는 것 외에도 강연 DVD를 상영하고 별도로 컴퓨터를 설치해 관음 웹사이트를 서핑할 수 있도록 했다.

전시 기간 내내 우리 부스는 영적 성장을 갈망하는 많은 방문객들의 발길을 끌었으며, 다른 부스의 전시자들도 비는 시간을 틈타 우리 부스에 들러 스승님의 강연 DVD를 감상했다. 그 중 한 방문객은 날마다 찾아와 스승님의 강연을 듣고 스승님의 사진도 구했는데, 행사가 끝나자 우리와

의 이별을 못내 아쉬워했다.

스승님의 놀라우신 안배로 우리는 이번 도서 전시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포모사와 중국, 홍콩의 동수들이 많은 도움을 준 이번 행사는 마카오 사람들의 영혼을 한 차례 고양시키는 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주변 4개 지역 동수들에게 있어서도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좋은 기회였다. 

마카오 소식



생명을 구하는 CPR 함께 배우기

[신쭈] 포모사 신쭈 센터는 살아계신 스승님의 자비심과 박애정신을 본받아 2002년 3월 30일과 31일 추베이의 추런 초등학교 강당과 교실에서 '생명을 구하는 CPR(심장 회생술) 함께 배우기' 활동을 개최했다. 대만 적십자 신쭈 지부의 지원을 받아 열린 이번 행사는 학생들과 지역사회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스승님의 축복 속에 동수들은

행사를 위한 연락과 협조 작업을 원활하게 마쳤다. 동수들은 큰 관심과 열의를 갖고 행사에 자원 참석해 이들 간의 강습회 동안 응급 처치법을

배울 수 있었으며, 이제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응용할 수 있게 되었다.

심신을 정화하는 안핑 무용제

[타이난] 포모사 동수들은 현지 사회에 영성의 수행을 소개하고 여가 활동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02년 4월 7일 타이난에서 가장 유서 깊은 건물인 젤란디아(안핑고보)에서 안핑 무용제를 열었다. 이 행사는 타이난 전통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안핑 문화교육 재단과의 협력으로 이루어졌는데, 가톨릭과 불교 단체도 대규모로 참여해 영적인 창의력과 다채로운 문화를 이 도시에 한껏 불어넣었다.

동수들은 무대에서 고전무용과 현대무용의 정수를 접목시켜 공연하며 다양한 중국 역사시대대로 청중들을 안내했다. 부드럽고 우아한 전통무용은 젊고 다이내믹한 현대무용과 어우러져 명랑하면서 포용적이며 영적 창의성을 가진 관음 수행자들의 일면을 표현했다.

이 행사에 참석한 타이난 시장인 쉬 티엔차이 씨는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가 영성을 추구하면서도 환경보호 활동과 심신 정화 활동을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공헌을 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하며, 동수들의 생기 발랄한 노래와 춤은 그들의 영적인 창의력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동수들은 타이난 시의 영성과 예술문화 활동을 장려하는 쉬 시장의 노고에 대한 답례로 『칭하이 무상사 예술창작집』 1권을 선물했다.

함께 행사를 주관한 안핑 문화교육 재단 허 스충 이사장도 칭하이 무



상사 국제협회는 현대 시류와 잘 부합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청소년을 선도하고 그들 마음을 정화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언급했다.

자비로운 어머니께 드리는 감사의 공연


[시우] 5월은 감사와 환희의 송가가 울려 퍼지는 달이다. 5월 12일 어머니날과 스승님의 생신을 경축하기 위해 포모사 동수들은 친척, 친구들과 함께 시후 센터에서 성대한 경축 행사를 치렀다.

마침 이날은 5월 선이 행사의 둘째 날이어서 동수들은 오전 명상을 마친 후 행사를 시작했다. 먼저 사회자가 스승님께 드리는 포모사 동수들의 카드를 낭독했는데, 짙막한 글마다 스승님에 대한 그리움과 감사의 마음이 가득 배어 있었다. 이어서 각 센터 동수들의 춤과 노래, 촌극 등 멋진 공연이 진행되었다. 아름다운 가락과 한껏 고양된 목소리로 공연하는 동수의 얼굴에 자연스레 흘러나온 그 진실한 감정은 무대 밑의 청중들 사





이에도 메아리쳐 흘러 모두들 스승님에 대한 그리움에 가슴 벅차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찼던 축하공연은 채식 케이크와 축복음식을 나눠 먹으며 막을 내렸다. 

이번 활동은 '예술과 영성' 제51편에 반영되었다.

인터넷 시청 관련 사이트:

<http://137.hichannel.com.tw> (중국어)



영혼의 고양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비디오 테이프

<영어>

729 위대한 길은 자신의 이상을 따르는 것

미국 플로리다 센터에서
스승님이 장주들에게 하신 말씀
2001년 4월 18/21/25일

730 사랑의 교감

미국 플로리다 센터 크리스마스 행사
2001년 12월 25일

<어울락어>

731 대중의 힘

미국 플로리다 센터 크리스마스 행사
2001년 12월 25일

<영어 + 독일어 통역 + 한국어 자막>

647 지상에서 천국을 체험하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강연
1999년 5월 9일

<영어 + 불가리아어 통역 + 한국어 자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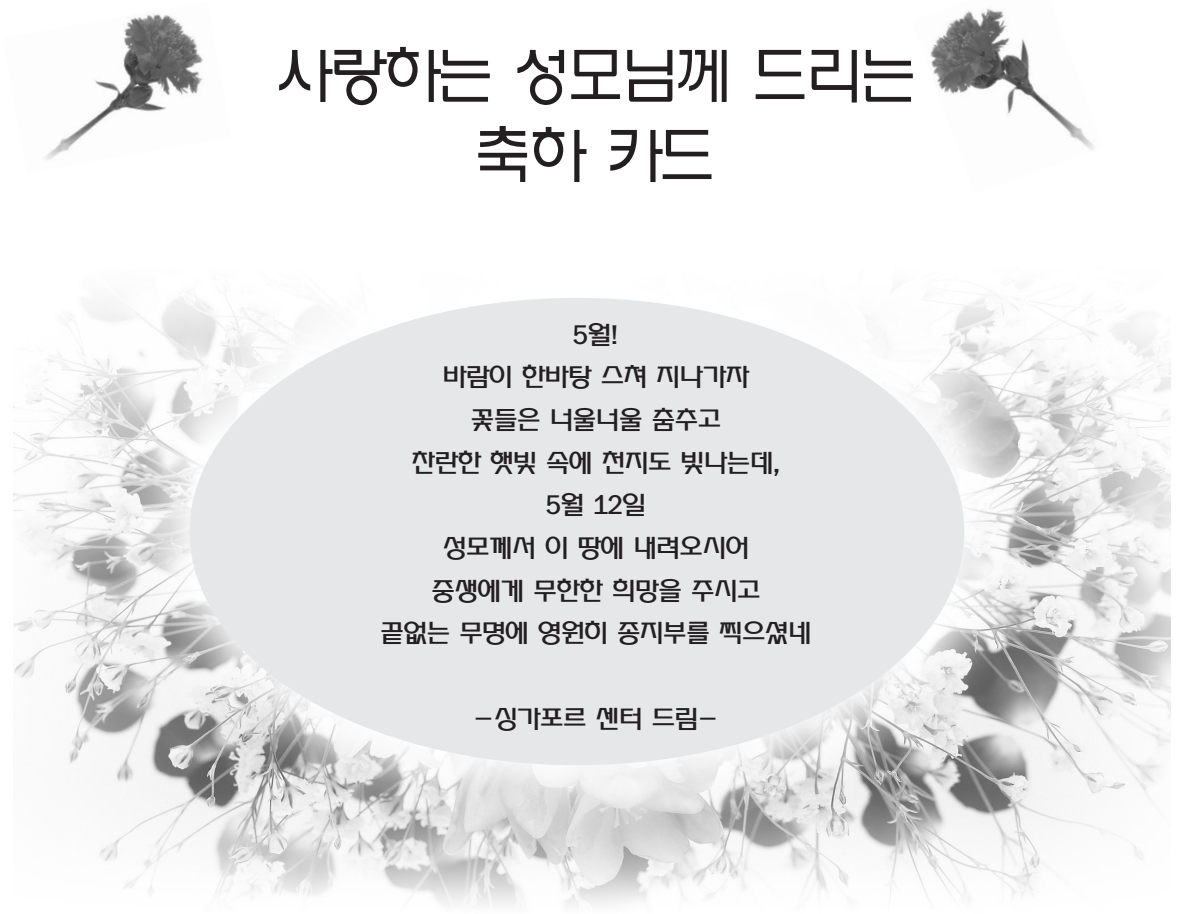
651 삶을 사랑과 경이로 채우자

불가리아 소피아 강연
1999년 5월 18일

<영어 + 한국어 자막>

656 영성은 역경 속에서 빛난다

아일랜드 더블린 강연
1999년 6월 7일



사랑하는 성모님께 드리는 축하 카드

5월!

바람이 한바탕 스쳐 지나가자
꽃들은 너울너울 춤추고
잔란한 햇빛 속에 전지도 빛나는데,
5월 12일

성모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어
증생에게 무한한 희망을 주시고
끝없는 무명에 영원히 종지부를 찍으셨네

—싱가포르 센터 드림—

아름답고 찬란한 5월이 지구를 축복하는 가운데, 전 세계 동수들은 어머니날과 스승님의 생신을 맞아 기쁜 마음으로 경축했다. 전세계가 기념하는 이 특별한 날, 우리는 우리를 낳아 주신 어머니께 깊이 감사드리며, 또한 동시에 우리의 영혼을 새로 태어나게 해주신 무상의 성모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어머니날 전일, 세계 곳곳의 센터들은 다채로운 기념 행사를 개최했으며, 또한 혁신적으로 창의적이고 멋진 전자카드를 제작해 스승님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와 기원을 전했다. 관음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스승님께 전하는 감사와 따스한 축복이 담긴 아름다운 메시지들을 감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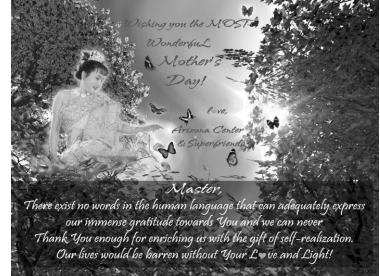


미국 애리조나

존경하는 스승님,

이 세상의 그 어떤 언어로도 스승님에 대한 저희의 감사를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스승님께선 '자아의 깨달음'이란 참된 선물로 저희 삶을 풍요롭게 해주셨으며, 당신의 사랑과 빛이 없었다면 저희 삶은 불모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감사한들 부족하기 그지 없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어머니날을 맞으시길 기원합니다!



미국 버지니아

사랑하는 스승님께,

조건 없는 사랑의 참된 의미를 보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저희 삶에 진정한 의미를 부여해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와 가족들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축복에도 감사드립니다. 스승님 덕분에 저희는 이제 자비란 진정한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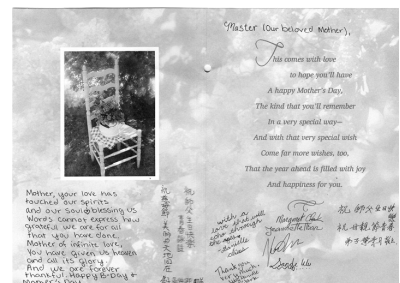


미국 캘리포니아 프레스노

존경하는 스승님,

당신의 사랑에 저희 영혼은 끝없이 감동하며 영원한 축복을 누립니다. 우리에게 해주신 그 모든 것에 말로 이루 다 감사를 표현할 수 없습니다. 무한한 사랑의 어머니이신 당신은 저희에게 천국과 그 모든 영광을 주셨습니다. 영원히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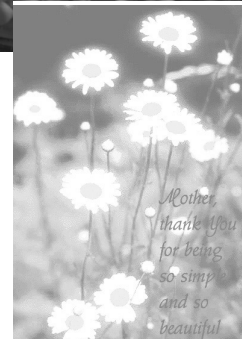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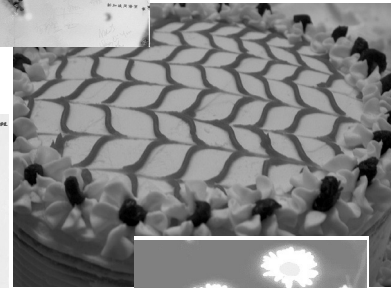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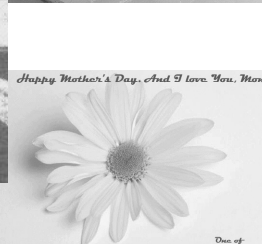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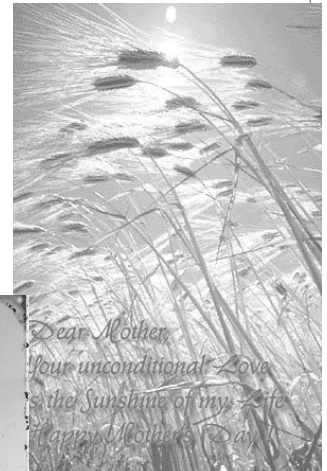
행복한 생신과 어머니날 되시길!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

사랑하는 스승님께,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저희를 돌봐 주시는 천사로서
늘 저희에게 사랑과 위안과 격려를 주고
저희와 온 인류에게 가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해의 그 눈길과 자애로운 미소는 저희에게 기운을 주시며
미래에 대한 밝은 희망을 굳게 확신시켜 주십니다.
언젠가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데려가고자 하는
당신의 꿈과 소망들은
아이를 사랑하는 어머니와도 같습니다.
우리에게 태양처럼 변함없고 확고한 희망을 주시며
우리를 힘과 평안과 불변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는 당신은,
우리의 수호천사이십니다!





미국 하와이

너무나 너무나 사랑하는 칭하이 스승님께,

5월 12일은 스승님께서 지구상에 처음 오신 기쁘고도 성스런 특별한 날입니다. 저희가 강력하고도 단순한 진리를 전해 듣고, 살아 계신 스승을 만나 그 가없는 희생과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신의 축복 덕분입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저희 가슴은 포근해지고 동 일체의 느낌을 받고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 어떠한 말로도 스승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전할 길이 없습니다. 이 특별한 날을 맞아 한량없이 기쁜 마음으로 스승님의 생신을 축하드리며, 스승님께서 저희의 이 마음을 아시리라 믿습니다.

스승님,

생신을 축하, 또 축하드리며

스승님을 사랑, 사랑, 또 사랑합니다!



캐나다 몬트리올

사랑하는 스승님의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이 땅에 오신 후, 스승님은 인류의 가슴을 끝없는 빛과 사랑으로 밝혀 주시고, 이 세상의 의식을 한 차원 더 높게 끌어올리셨습니다. 해마다 기쁜 마음으로 경축하는 5월 12일이 어머니날이자 부처님 오신 날인 건 정말 우연이 아닙니다! 스승님은 우리의 영혼을 빛으로 이끄시는 우리의 진정한 어머니이시며, 인류를 무지의 나락에서 건져 인도하시는 살아 계신 인도자이시니까요.

이 세상에 하나뿐인 가장 사랑하는 스승님, 이 기쁜 날을 맞아 지복과 내면의 평화, 환희로 언제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온 마음으로 신의 축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Dear Master:



*Toronto Center
May 12, 2002*



캐나다 런던

사랑하는 스승님께,
우리 모두가 경축하는 이 가장 멋진 날에
영원한 환희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스승님과 함께하는 나날을 소중히 여기며,
영원히 이 세상에 머무르시길 소망합니다.
그 무한한 사랑이 이 땅에 영광을 밝히고
신의 은총이 온 누리에 가득하길 또한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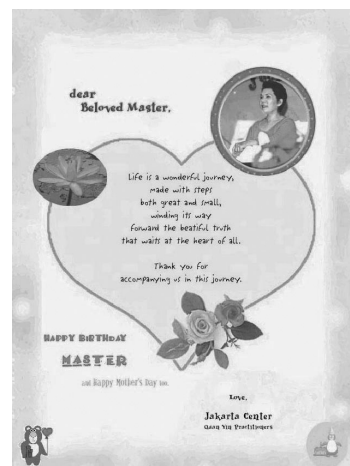
스승님, 생신과 어머니날을 축하드립니다!
런던의 행복한 아이들은
스승님께서 영원히 아름답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멕시코

사랑하는 스승님,
당신의 날인 오늘, 살아 계신 스승을 우리에게 보내 주신
신께 가장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스승님의 생신을 축하드리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스승님의 끝없는 사랑이 느껴집니다. 저희에게
관음법문을 전해 성스런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해주신 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스승님께 영원한 사랑을 보내며





파나마

사랑하는 최고의 스승님,
행복하기 그지없는 생신이 되시길, 그리고 멋진 어머니날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온 우주의 보배이신 스승님은 저희에게 아무런 조건도 없이
가장 크고 아름다운 내면의 빛과 소
리를 선물하셨습니다.

이 특별한 날을 맞아 저희의
가장 깊고 진실한 사랑, 축복을
드리며, 언제나 건강하시고 만사
여의하시길 기원합니다.



스웨덴

존경하는 스승님,
기나긴 어둠의 시간을 지낸 우리의 영혼에 스승님께선 북극성처
럼 다가오셨습니다.

여명이 밝아 오며 이제 어두운 밤은 다시 오지 않게 되었고, 저희
의 상처는 스승님의 성스런 광명에 위안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신께서 밝은 빛으로 지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무지개 너
머 고향으로 데려가실 당신의 아름다운 딸을 보내 주신 날입니다.

스승님, 온 마음을 다하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스승님의 생신을 축하, 또 축하드립니다!





브라질

사랑하는 스승님,
온 우주의 어머니,
끝없이 저희를 돌봐 주셔서 감사드리며,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스승님의 생신과 어머니날을 축하드립니다!

브라질의 아이들 드림



포모사

가장 사랑하는 스승님 어머니께,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저희는 스승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립습니다.
저희는 훌륭한 아이들이 되어 열심히 수행하고 우주의 높은 성인답게 행함으로써 스승님의 큰사랑
에 보답하겠습니다!
영원히 젊고 아름다우시길,
또한 영원히 온 우주에서 가장 눈부신 스승이시길 기원합니다!

스승님을 가장 사랑하는 아이들
포모사 전체 동수 올림



불가리아

사랑하는 스승님,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스승님의 모든 화현에 감사드리며, 스승님이 행하시는 일체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스승님의 생신을 맞아 드리는 저희의 깊은 사랑과 인사를 받아 주세요. 신의 축복과 가호 속에 오랫동안 머무르셔서 저희가 스승님의 빛나는 모범을 보고 따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사랑하는 스승님,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스승님을 그리워하며, 스승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겨 모두들 이 세상의 진선미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모든 센터 동수들에게 베풀어 주신 스승님의 사랑과 축복에 너무나 감사드리며, 언제나 행복하시고 평온하시길 기원합니다.

스승님의 아낌없는 사랑에 감사드리며...

한국 전국 센터 올림



어머니날 카드 관련 URL:

<http://www.godsdirectcontact.com/motherday> (미국)

http://www.godsdirectcontact.net/eng/special_report/MotherDay/photos.htm (미국)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ch/special_report/MotherDay/index.htm (포모사)

성모의 절대적인 사랑에 천국을 체험하다

미국 뉴스그룹 (원문 영어)



전세계 동수들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는 어머니날이 다가오자 스승님에 대한 동수들의 그리움도 깊어만 갔다. 카네이션 향기에 따라 갈망도 짙어질 무렵, 뜻밖에도 미국 플로리다에서 스승님과 함께 어머니날을 보낼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 왔다!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헝가리, 아일랜드, 브라질, 호주, 일본, 포모사, 홍콩, 한국 등 각 센터에서 모여든 동수들과 손님들은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플로리다 센터에 머물며 흥겨운 마음으로 어머니날과 스승님의 생신을 경축했다.

5월 10일 금요일, 작업 팀 동수들의 협조 속에 모든 준비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스승님의 사랑과 은총이 가득한 특별한 분위기 속에서 보통 며칠씩 걸

릴 일들이 단 몇 시간 만에 완성되어 그날 저녁에는 온 센터가 수백 개의 헬륨 풍선을 비롯한 많은 아름다운 장식으로 치장되었다. 풍선들은 넓은 대지 위에 드문드문 흩어져 있는 기둥들 위에서 수호천사들처럼 둥둥 떠다니고, 센터 정문 위에 달린 풍선으로 된 아치는 명상 홀까지 무지개처럼 계속되었다. 수백 개의 화분과 꽃들이 그 풍선들을 따라 죽 늘어섰고 바람개비도 햇빛을 받아 바람 속에 반짝반짝 빛났다.



사제간의 기쁜 상봉

5월 11일 새벽 첫 명상 시간, 스승님은 구름을 타고 내려온 천사처럼 조용히 명상 홀에 들어오셨다. “잘 잤어요?” 하시며 가볍게 이야기를 시작하신 스승님은 당신의 개와 새를 진찰한 수의사에 얹힌 감동적인 이야기를 몇 가지 들려주셨다.

두 번째 명상 시간에는 이웃을 대하는 법에 대해 얘기하시며 당신은 스스로 이 세속에 살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늘 실천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스승님은 이사를 자주 다니셔서 많은 다양한 이웃들을 만나고 종종 그들에게 도움과 선물을 베푸시지만, 그들은 스승님의 깊은 사랑과 호의를 이해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녀가 뭔가를 꾸미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워하며,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을 리 없다고 믿는다.

스승님은 이번 선은 함께 있는 시간이 짧으니 ‘가볍게’ 명상하자고 하시며 우리에게 스승님을 실컷 뵈고 많이 먹을 수 있도록 하며, 명상도 과도하게 안배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 어머니날 경축행사였기 때문에 스승님이 밝고 사랑이 넘치는 분위기를 자아내 모두들 매우 편안하고 즐거워했다. 정말이지 스승님이 만들어 주신 천국에 있는 것 같았다!

같은 날, 점심시간에 갑자기 오신 스승님은 부드럽고 다정하게 우리와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그 속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깊은 통찰력이 담겨 있었다. 우선 화창한 날씨에 대해 언급하셨는데, 그 말씀은 우리가 많은 축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시는 것이었다. 이어서 세상에는 더 많은 축복이 필요하며 미국이 최근 겪은 심한 타격에 대해 말씀하셨다. 이는 상황이 극에 달하면 다시 호전된다는 도가의 주장과 맞닿아 있었다.

그리고 나서 스승님이 당신 처소로 동수들을 초대해 함께 점심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자 모두들 흥분과 기쁨을 가누지 못했다! 선에 온 모든 사람들에게 그 기회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스승님은 그 약속대로 먼저 ‘눈송이(서양 동수들)’와 ‘초콜릿 칩(흑인 동수들)’을 점심에 초대하신 데 이어 저녁에는 여러 나라에서 온 ‘콘

플레이크(동양 동수들)’를 몇 팀으로 나눠 초대해 차와 식사를 함께하셨다.

스승님의 처소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동안, 가장 사랑하는 스승이자 친구인 스승님의 끝없는 자비에 깊은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느낀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 스승님과 제자들의 대화는 허물없이 매우 자연스럽게 진행되었다. 전에 얼마 동안 스승님과 함께 지낸 적이 있는 한 사제가 아직도 퇴실할까 두렵다고 말씀드리자, 스승님은 그런 두려움은 괜찮다고 안심시키며 그로 인해 도를 구하기 위한 결심이 더욱 굳건해질 거라고 말씀해 주셨다. 왜냐하면 마야가 어떤 형태로 오는지 우리로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은 오히려 마야에 대한 경계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한 가지 놀라웠던 일은, 한 동수가 스승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모습이 완전히 바뀐 것이다. 처음에 그 사제는 매우 의기소침한 모습으로 고개를 떨구고 얼굴도 어두웠지만, 스승님과 대화를 마칠 즈음엔 얼굴에 기쁨이 되살아났고, 사랑하는 어머니를 쳐다보면서 미소를 지었다. 살아 있는 부처의 이 치유의 기적을 지켜본 모든 사람들도 그 사제와 같은 축복을 받았다!



어머니날과 스승님의 생신 경축행사

5월 12일 일요일 어머니날, 맑고 시원한 날씨 속에 동수들은 명상을 마친 후 부드러운 플로리다의 미풍 속에서 한가로이 아침식사를 했다. 그리고 나서 오후에는 공연에 참가할 사람들이 형형색색의 공연복과 전통의상을 입고 스승님이 도착하시길 기다렸다. 잠시 후 스승님이 사랑스런 네 명의 화동들을 앞세우고 명상 홀 뒷문으로 들어오셨다. 스승님은 복숭아 빛 솔에 아름다운 시폰 드레스 차림이셨는데 화동들의 드레스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다. 색의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행렬에 관중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를 터뜨렸다.

먼저 어머니날과 스승님의 생신에 대한 사회자의 축하사가 끝나자 이내 공연이 시작되었다. 스승님은 처음으로 혼자 무대에 오른 많은 공연자들에게 격려의 미소를 보내 주셨다. 한 사저가 무용 공연을 마치자 스승님은 그녀에게 축복사탕을 주시고, 옆에 놓인 꽃다발에서 싱싱한 장미를 뽑아 그 사저의 머리에 꽂아 주셨다. 또 어린 동수들의 '사람의 아들'이라는 제목의 열정적인 공연을 매우 즐겁게 관람하셨는데, 이 어린 동수들은 노래를 통해 강인하게 성장하고 재능을 발휘해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을 스승님께 약속드렸다.

공연이 막바지로 다다를 무렵, 스승님은 대중의 요청에 따라 무대에 나와 주방 팀이 준비한 멋진 다단 생일 케이크를 자르셨다. 마지막에 하신 시처럼 아름다운 스승님의 말씀은 많은 동수들의 가슴을 울렸으며, 스승님은 감동의 박수소리에 말씀을 계속하실 수 없을 정도였다. 다음은 당시 스승님이 하신 말씀의 일부분이다.

**내가 지혜롭다면
그건 여러분의 총명한 질문 때문이며,
내가 자신감에 넘친다면
그건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 덕분입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매년 젊어지는 것은

내가 오래오래 살기를 여러분이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아름다운 말씀을 듣고 우리는 눈시울을 붉혔으며 마음 또한 포근해져 스승님의 사랑에 걸맞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결심했다.

스승님이 명상 홀을 떠나신 후, 사람들은 모두 식당에 모여 주방 팀이 준비한 풍성한 케이크와 다과를 즐겼다. 그날 저녁 다시 우리를 보러 오신 스승님은 새 입문자들을 불러 곁에 앉도록 권하시고 중국 동수들과도 만나셨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그날 밤 떠나야 했지만, 일부 동수들은 계속 남아 그 후 며칠 동안 스승님이 아직 함께 계시는 아름다운 분위기를 즐겼다.

스승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아낌없는 관대함으로 인해 스승님과 함께한 며칠은 훨씬 더 길게 느껴졌다. 선 기간 동안 스승님은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여러 차례 우리를 보러 오셨고, 우리는 하루종일 스승님의 사랑과 관심에 젖어 세속을 완전히 잊어버렸다. 모두들 무상한 일상사로 되돌아가야 했지만 스승님과 함께 보낸 시간은 우리들 가슴속에 천국처럼 시간이 멈춘 채 소중한게 남을 것이다. 



전세계 채식식당

미국 오리건

★ 사랑 한국 채식식당(한식 및 양식)

- 주 소 : 706 SW Hurbert St., Newport, OR 97365, USA
- 전 화 : 1-541-265-5803

전세계 채식식당에 대한 더 많은 정보에 대해서는 다음 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http://www.godsdirectcontact.com/vegetarian/veg.html>

남아프리카 소식

남아프리카에 아직도 계속 흐르는
스승님의 축복

(원문 영어)

1999년 스승님은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된 세계 종교회의에 초청을 받으셨다. 스승님이 세계종교회의장에 도착하셨을 때, 호사족들이 전통 춤과 노래로 스승님을 환영했다. 나중에 스승님이 그들과 얘기를 나누시며 그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자상하게 묻자, 원주민들은 집수리가 시급하며 목욕 시설 부족도 극심하다고 말씀드렸다. 이에 스승님은 그들의 생활 개선을 위해 즉시 5만 2천 달러를 지원하도록 지시하셨다. 또 원주민 사회의 다양한 건설 계획에 쓰이도록 세계종교회의의 주관자 중 하나인 이카마구(Icamagu) 협회에도 5만 2천 달러를 기부하셨다. 이 기금은 노쿠줄라 음덴데(Nokuzola Mndende) 여사가 협회를 대표해 받았다.



1999년 남아공 강연 당시, 스승님은 호사 원주민들로부터 춤과 노래로 따뜻한 환영을 받으셨다.



칭하이 스승님과 이카마구 협회 창시자이자 이
사인 노쿠줄라 음덴데 여사.

2002년 3월 18일 남아프리카 트랜스케이에서 이카마구 협회의 정식 창립 행사가 열렸다. 이 정보센터는 노쿠졸라 음텐데 여사의 염원으로 성립되었으며, 그 목적은 아프리카 식민지 시절 뿌리째 뽑힌 아프리카 전통 종교 및 문화를 연합해 아프리카인의 삶에 다시 접목시키는 데 있다. 이 전통들은 곳곳에 퍼져 있는 아프리카인들의 정체성과 본래 모습을 되찾아 줄 것이다.

이번 행사에는 정부 장관을 역임하고 있는 국왕과 지방단체장,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케이프타운 센터 대표, 초청 강사들이 참석했으며, 연설자들은 Omanyano(인류의 단결), Ubuntu(조화로운 인간관계), Camagu(신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중요성을 입을 모아 강조했다. 또한 칭하이 무상사의 아끼없는 기부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으며

스승님께 보낸

노쿠졸라 음덴데 여사의 감사 서한

[illegible]

이카마구 협회의 설립에 대해서도 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 연설자는 자신이 60세에 주창한 아프리카 종교의 자유와 해방에 대한 염원이 이제야 현실화되었다며 감동해 마지않았다.

열정적인 춤과 노래, 악기 반주 등의 공연이 이어지는 가운데 많은 젊은이들이 단상 앞으로 나와 진리와 사랑, 원칙에 대한 의견을 제기했다. 행사가 끝난 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만찬을 즐기며 밤늦게 까지 축제를 계속해 나갔다.



음텐데 여사가 창립한 이카마구 협회의 창립 행사.



신의 햇불이 되라

피닉스 사저/ 오스트리아

전생의 좋지 않은 인과 탓인지, 나는 어떤 사람의 흑마술 때문에 아주 힘든 시기를 겪어야만 했다. 이런 부정적인 영향에 대응할 유일한 방어책은 스승님께 기도하고 오불을 외우며 스승의 힘에 의지하는 것뿐이었다. 그런 많은 부정적인 상황을 타개하고자 노력하면서 긍정적인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신심만 있다면 긍정적인 힘은 언제나 승리한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경험 또한 또 다른 형태의 축복임을 알게 되었다.

한번은 기차를 타고 가다가 검은 안개 같은 불쾌한 기운이 내 주위를 강하게 감싸는 걸 느꼈다. 나는 오불을 외우기 시작했지만, 그리고도 얼마간 그 기운이 남아 있자 마지막엔 스승님의 법호를 외우기 시작했다. 그러자 바로 눈부신 빛줄기가 뿜어 나와 어두운 안개를 몰아내고 밝고 사랑이 넘치는 에너지가 객실을 가득 채우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경험을 통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불만 외우고 하루종일 스승님을 생각하기만 해도,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을지언정 우리가 가는 곳마다 엄청난 빛이 따라다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스승님께 신실하게 집중하면 신의 햇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서리 선 행사의 기적

사히드 마흐무드 사형/ 영국 입스위치 (원문 영어)

나는 작년 플로리다에서 스승님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돌아온 후, 올해는 더욱 수행에 매진하겠다고 맹세했다. 우선 서리센터에서 매달 셋째 주에 열리는 선이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매달 첫째 주에 있는 선일 행사에는 아내와 아이들도 데려가기로 마음먹었다.



서리 선삼 동안 빛과 소리의 세례로 인한 영성의 빛이 동수들의 얼굴에 빛난다.

작년엔 수행이 순조롭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내가 때로 명상을 게을리하거나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바람에 두 시간밖에 명상하지 못하고, 때로는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일을 우선시하느라 선이를 빠졌기 때문이다.

어느 선이 행사에서 한 사형이 부활절에 선삼이 있을 것이라고 알려줬는데,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렇게 빨리 선이 또 있으면 결코 갈 수 없겠다는 생각이 머릿 속을 스쳤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자마자 나는 그 사형에게 ‘꼭’ 선에 참석하겠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이 결심을 굳혀 버렸다.

후에 나는 정말 내 맹세를 지켜 선에 갈 수 있었다. 그날 아침 내 차에 올랐을 때 나 자신이 해냈다는 것을 알았다! 선 기간 동안, 나는 스승님의 지혜와 사랑에 잠겨 명상하고 스승님의 책과 비디오를 보고 배우며 선을 한껏 즐겼다. 맛있는 음식과 케이크도 맘껏 먹고 고난도의 태극권도 배우며 큰 소리로 웃었다. 평화롭고 조화로운 분위기의 서리 센터에서 휴식하며 수행을 하니, 정말 천국이 따로 없었다.

선 첫째 날, 네 차례의 명상 시간은 고옥스럽기 짝이 없었다. 관음할 때는 계속 졸리고 몸이 쭈서서 자

주 자세를 바꿔야만 했다. 비록 마음은 사방팔방으로 흩어지고 잡념이 계속되었지만, 인내심을 갖고 계속 명상했다. 그러다 마침내 지복이 넘치는 삼매의 즐거움을 맛보게 되었는데 마치 감로수처럼 달콤했다. 내가 앉는 의자가 너무 편안해서 평소에는 졸곤 했던 것이 이번에는 온몸에 에너지로 충만하고 집중도 잘돼 바라보는

곳마다 빛이 가득했다. 관음할 때는 몸이 이완되고 날아갈 듯 가벼웠으며 평화롭고 사랑스러운 소리가 몸속으로 부드럽게 스며드는 듯한 체험을 했다. 그 명상 시간이 끝나자 내면과 외면의 다툼은 끝이 나고, 나는 즐겁고 자신감이 넘쳐 다음 명상 시간이 기다려졌다.

선에 참석한 한 사형은 밀 알레르기가 있었는데, 주방 팀은 특별히 그 사형을 배려해 끼니 때마다 밀가루가 들어가지 않은 음식을 준비해 주었다. 선의 마지막 날, 한 사제가 디저트로 커스터드 케이크에 생크림과 딸기를 얹은 트라이플을 만들었다. 50명이 먹고도 남을 만큼 두 쟁반이나 만들었는데, 디저트를 먹기 위해 줄을 서 있는 동안 모두들 배를 움켜쥐며 군침을 흘렸다. 밀 알레르기가 있는 사형도 신이 나서 주방으로 달려와다가 트라이플을 보고는 고개를 떨구었다. 우리는 어쩌면 명상한 덕분에 알레르기가 치유됐을지도 모른다고 한번 먹어 보라고 권했다. 그래서 그는 접시를 받아들고 먹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아무런 이상도 없었다! “이건 기적이야! 다 나았네!” 하며 모두들 놀라움과 감격으로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다.

2002년 부활절 선삼은 진정한 영적 가족들과 함께

보낸 즐거운 시간이었다. 나는 선 기간 동안 너무나 큰 즐거움과 축복을 경험해 다음 선을 학수고대하게 되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나 자신이 사랑과 이해심으

로 충만해진 것을 느꼈으며 그 후로도 오랫동안 수행의 고양감을 계속 맛볼 수 있었다!



이야기 세상

쌀 한 포대가 가져온 무한한 축복

씨아오차오 사저/ 포모사 타이베이

별것 아닌 쌀 한 포대로 인해 우리 온 가족은 스승님으로부터 한없는 축복을 받았다. 가족 중 한 사람의 아주 작은 공양에 대해 스승님은 그 수만 배로 되돌려 주신 것이다. 이 일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그 감동에 목이 메이곤 한다!

나의 할아버지는 원래 소작농이었다가 나중에 작은 땅을 받아 소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수확량으로는 온 가족이 먹고 살기 힘들었다. 그래서 나의 아버지는 고향을 떠나 타이베이로 와서 생활하기 시작했는데, 추수가 끝날 무렵이면 고향에서 쌀을 몇 포대 갖고 돌아오시곤 하셨다.

초창기에 스승님은 신디엔에 머무셨는데, 한번은 선일을 하다가 출가승 책임자가 쌀이 부족하다고 보고드렸다. 스승님은 그에게 “걱정 마. 누군가 쌀을 가져올 테니까!” 하고 안심시켰다. 마침 그 순간 내 여동생이 고향에서 농사지은 쌀을 한 포대 갖고 산을 올라오며 큰 소리로 외쳤다. “스승님! 스승님! 쌀 가지고 왔어요!”

그날 이후 가난했던 우리 집은 물질과 영성, 모든 면에서 기적과도 같은 큰 변화를 체험하기 시작했다. 부모님과 형제자매, 심지어 그 다음 세대까지 모두 차례차례 스승님의 제자가 되었으며, 또한 살림 형편도 점점 나아


져 빛을 모두 갚고 점차 자급자족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여동생의 남편은 전자 계통의 상장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쌀 한 포대의 조그마한 정성이 온 가족을 부양한 것이다!

10년 전 어느 날 우리는 여동생과 함께 시후 센터의 단체명상에 참석했다. 그때 여동생은 스승님께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우리에게 그 쌀 한 포대에 얹힌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 스승님은 법문 도중 갑자기 한 말씀을 던지셨다. “그건 쌀 한 포대일 뿐이에요. 마음에 두지 마세요!” 그 말씀을 듣고 여동생은 너무 놀라 말했다. “스승님은 정말 영험하셔! 다시는 이 얘기를 하지 말아야겠어.”

당시 우리 집안은 이미 형편이 좋아진 상태여서 여동생은 그에 대해 스승님께 감사한 마음을 우리와 함께 나누고 싶어했던 것뿐이었다. 10여 년이 지난 오늘도 그동안 가족들에게 일어났던 수많은 기적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은 감사하기 이를 데 없다. 작은 쌀 한 포대가 이렇게 결실을 맺어 숲을 이룰지 그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스승님의 사랑은 우리 범부로서는 도저히 가늠할 길이 없다!

내가 이 이야기를 공개하는 것은 스승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선 우리 도움이 조금도 필요치 않다는 것을 알

리고 싶어서이다. 그러니 우리는 뭔가를 했다고 해서 내 세울 것도 없는 것이다. 다만 스승님에 대해 절로 우러난 우리의 헌신은 스승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하나

의 구실로서, 그리고 우리가 정말 스승님과 하나라는 것을 체험할 기회로서 역할을 할 뿐이다. 



모든 중생은 동등하다

청하이 무상사/ 1995. 12. 27. 포모사 시후 (원문 영어)

비디오 테이프 No. 519

자고이래로 동양인들, 특히 중국인과 어울락인들은 거북이를 매우 신성하게 여겨 왔습니다. 그건 이들의 수명이 아주 긴 데다 사리를 잘 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감히 이들을 죽이지 않았지요.


이 말도 다소 일리는 있습니다. 예전 어울락 어부들은 고래나 착한 돌고래를 숭배했습니다. 때로 폭풍우나 태풍 같은 극한 상황을 만나면 고래나 돌고래가 길을 인도하거나 심지어 뒤에서 배를 밀어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주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물에 빠진 사람들을 육지로 밀어내기도 했지요. 그래서 어부들은 이런 동물들을 결코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들이 어쩌다 죽게 되어도 이를 발견한 어부나 물 속에서 수영하고 있던 사람들이 물어 주고 밤낮으로 기도해 주었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영리한 동물들이 있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로 우리도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돼지나 애완동물조차 충성스럽고 다정하며 큰일이 벌어지면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신문에서도 동물들이



이뤄낸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이 보도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개는 집에 불이 나자 아이들을 구출했고, 어떤 돼지는 수십 리를 달려가 주인을 구했습니다. 잠시 후 도살될 지언정 말이지요. 또 어떤 말은 계속 주인의 무덤 곁을 지키며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또 주인의 무덤을 결코 떠나지 않으려고 했던 개의 이야기도 있습

니다. 이런 일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동물들이 인간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이니까요. 어쨌든 만물은 신이 창조하셨으므로, 동물이라고 해서 우리처럼 내면에 신성의 빛이 빛나지 않으리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모습이 다르고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만으로 우리보다 못한 게 아닙니다. 아프리카인들은 검은 피부에 아프리카어를 쓰지만, 백인종의 미국인이나 황인종의 아시아인에 비해 그 어떤 면에서든 조금도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전세계 관음가족들이 플로리다에 모여
사랑하는 어머니 스승님과 함께
어머니날과 스승님의 생신을 경축하다.



우주 최고의 성모께
신실한 감사의 마음으로
아름다운 선율과
다채로운 무용을 바칩니다.







스승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아낌없는 마음이 동수들의 가슴 깊이 전해져
자비로운 어머니와 함께 보낸 매 순간은
천국 그 자체였다.



수개월 전 어느 날 저녁, 쉬 사저는 운동을 하기 위해 가족들을 태우고 즐거운 마음으로 공원에 도착했다. 목적지에 도착한 후 가족들이 먼저 차에서 내리고 마지막으로 쉬 사저가 내리려던 순간, 두 명의 남자가 등뒤에 총구를 대고 다시 차에 들어가라고 지시했다. 그녀는 운전을 하면서 “어디로 갈까요? 어느 길로 갈까요?”라며 물었지만, 그들은 매우 긴장된 모습으로 앉아있기만 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긴박한 상황 속에서 쉬 사저는 스승님께 도움을 청했다. 마침 차 오디오에서 나오고 있던 스승님의 오디오 테이프를 크게 틀자 차 안은 곧 스승님의 부드러운 음성과 사랑의 자장으로 충만해졌으며, 그때부터 쉬 사저는 두 남자에게 말을 걸면서 물질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들은 그녀가 어떻게 그리 침착한지, 그리고 혹시 사저가 갇단의 두목이 아닌지 의심스러워했다. 그녀는 자신이 칭하이 무상사의 제자이며 오계를 지키고 채식을 한다고 얘기했다. 또 돈을 원한다면 차를 주겠으며 경찰에도 신고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사저리가 나타나자 쉬 사저는 그들에게 안전벨트를 매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경찰의 단속에 걸려 생각했던 일을 제대로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일러주었다. 또 앞으로는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충고도 했다. 그들은 “그까짓 돈 때문에 우리가 이러는 줄 아는가?” 하면서 화를 벌컥 냈다. 쉬 사저는 이에 이

스승님의 사랑이 거친 마음을 제도하다

포모사 타이쥔 쉬 사저 구술
포모사 타이쥔 뉴스그룹 기록

일반 사람들은
고급 승용차가 사회
적으로 높은 지위를 상징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런 고급 승용차를 갖고 있
는 쉬 사저로서는 행인들의 감
탄 어린 시선이 오히려 부담스
러울 뿐이다. 그녀는 차가 아
무리 좋아 뵈자 차는 교통수
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
한다. 최근 그녀에게 발생
한 사건을 보면 이런 생
각에 납득이 간다.

렇게 대답했다. “우리 스승님은 참으
로 위대하시며, 그 가르침은 정말 훌
륭합니다. 만일 당신들이 채식을 하
고 수행을 원한다면 내면의 만족과
행복을 느껴 많은 돈이 필요 없을 겁
니다.”

두 남자는 한편으론 스승님의 오
디오 법문을 들으면서 다른 한편으
로 쉬 사저와 한동안 이야기를 나
누었다. 원래는 그녀를 타이베이로
납치할 계획이었지만 45분 동안 타
이쥔 시내에서 빙빙 돌다가 결국에
는 다시 공원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떠나면서 이러
게 말했다. “아마 우리가 오늘 당신
을 만난 것은 당신의 스승이 우리
를 구하고 싶어했던 탓인 것 같소.
그러니 앞으로 더 많이 염불하십시오.”
“그래요. 그럴게요. 그리고 스승님께
당신들을 축복하고 당신들의 영혼
을 보호해 달라고 기도드리겠어요.”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은 차는 포기
하고 쉬 사저의 휴대폰만 가지고
떠났다.

그 사건 후 사저의 가족들은 걱
정을 했고 친구들도 소식을 들곤
안부전화를 했지만, 쉬 사저는 심
신이 평안하고 사랑이 마음속에 가
득 차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자신이 그토록 차분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스승님의 축
복 덕분이라는 것을 안다. 스승님
이 그녀의 인과를 해결해 주시지
않았다면, 그녀는 그 재난을 무사
히 넘기지 못했을 것이다! 스승님
은 그 위험한 상황을 오히려 강도
들의 영혼을 깨우치는 기회로 삼아
그들의 마음에 선인(善因)을 심어

주셨으며, 또한 쉬 사저의 가족들 다. 쉬 사저는 관음법문을 수행한 후 승님의 무소부재한 보호를 얻게 된
에게는 수행의 이로움을 보여 주셨 그 무엇도 두려울 것 없는 용기와 스 자신이 정말 복이 많다고 생각했다!



지예어록

이 세상을 만물과 함께 공유하자

청하이 무상사/ 1994. 6. 30.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 채식의 집 (원문 영어)

비디오 테이프 No. 437

사실상 이 세상은 모두의 것입니다. 거기엔 동물도 포함되지요. 그래서 채식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만물의 생명의 힘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이 지구를 원했기 때문에 지구가 존재하는 것이며, 동물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내려오면 이 지구가 우리만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들 서로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홍인종, 흑인종, 황인종 등 자신과는 다른 '외계인'을 제거하기 시작하지요.

홍인종은 백인종을 없애려고 하고, 백인종은 흑인종을 없애려 합니다. 또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은 합동으로 동물을 제거하려 하지요. 우리는 이 세상의 공동 소유자이지 단독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을 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을 죽이거나 먹지 말아야 하지요. 물론 다른 생물체도 죽여선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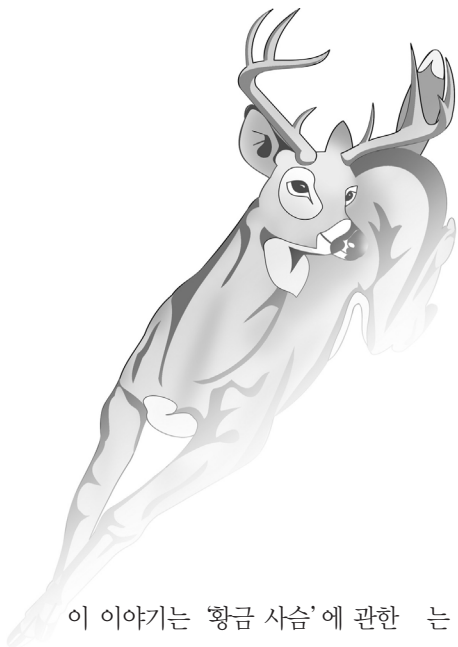


때로 정치나 애국심, 종교의 명분으로 죽이고는 많은 그럴싸한 이유를 붙여 이를 정당화시키곤 합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죽인다면 다음 생에선 우리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오히려 그 원인에 대해 의문을 던지지요. 사실 납득 못할 것도 없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기 마련이니까요. 성경에서도, "뿌린 대로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전쟁이

나 다른 분쟁으로 고통받지 않는 사람들은 곧 그들이 이전에 폭력의 씨앗을 뿌리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계속 그런 태도를 견지해 나간다면, 명상하지 않고 신을 숭배하거나 어떤 수행단체에 들지 않아도 다음 생에는 안전하고 건강한 인간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파괴나 전쟁, 폭력의 씨앗을 뿌리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황금 사슴

부처의 전생 이야기

칭하이 무상사/ 1996. 5. 14. 캄보디아 프놈펜 국제 선철 (원문 영어)

비디오 테이프 No. 548

이 이야기는 ‘황금 사슴’에 관한 것입니다. 이 책에는 ‘금빛’에 관한 이야기가 아주 많은데, 웬지 모르게 이 이야기를 골랐습니다. 아마 내가 사슴을 좋아해서 그런가 봅니다. 이 이야기는 부처의 전생 이야기들 중 하나예요. ‘금빛’이란 얘기를 들으면 그게 부처와 관련된 얘기구나 하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되지요.

아주 먼 옛날, 베나레스에 아주 부유한 상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에겐 마하다나카 아난다라는 외아들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돈밖에 모른다는 뜻입니다. 아주 안 좋은 이름이지요. ‘아난다’는 기쁨을 뜻하는데, 아마 그는 돈에서만 기쁨을 얻었나 봅니다. 아니면 그냥 별명이었겠지요.

그의 부모는 아들이 하나뿐이라 어렸을 때부터 온갖 응석을 다 받아줬습니다. 그는 클 때까지 아무런 지식도 없이 노래하고 춤추고 부모의 돈으로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밖에 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다 나이가 차자 부모는 그에게 부인을 얻어주고

는 얼마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이는 부모가 죽은 후에도 여전히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친구들과 어울려 도박과 술을 하며 허송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결과 부모가 물려준 돈은 금세 바닥이 나서 남에게 돈을 빌려야만 했지요. 하지만 그에겐 빚을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돈을 버는 법도 몰랐고 재산을 유지하는 법도 몰랐으니까요. 아마 근검절약하는 법도 배운 적이 없었을 겁니다. 이걸 부모의 책임이 큼니다. 그들은 부자의 아들로 사는 법을 가르칠 게 아니라 인간이 되는 법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는 여러 사람에게 엄청난 빚을 지게 되어 빚쟁이들로부터 끊임없이 빚 독촉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된 그는 어찌할 바를 모르다 최후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절망적인 심정으로 채권자들을 모두 불러 놓고는 갠지스 강둑 근처에 묻어 놓은 보물이 있으니 만약 다음날 함께 가서 보물을 찾아내면 모든 빚을 청산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다음날 빚쟁이는 매우 기뻐하며 그를 따라 강둑에 갔습니다. 그가 여기자기를 파헤치는 시늉을 하자 그 모습이 웬지 수상쩍은데도 사람들은 덩달아 따라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사실 자살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건 일종의 쇼에 불과했죠. 그는 급류가 굽이치는 강쪽으로 가더니 그대로 뛰어들었습니다. 빚쟁이들은 모두 겁에 질려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물살이 너무 거센기 때문에 어느 누구 하나 감히 그를 구할 생각도 못 했습니다.

그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자 빚쟁이들은 그가 익사했다고 생각하고는 슬퍼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물살이 너무 거세 그의 몸이 아주 멀리 휩쓸려 간 데다 하류 쪽에서도 그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모두들 그대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한편 이 청년은 의식을 잃고 떠내려가다 꽃들이 만발한 망고나무 숲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매우 아름답고 바람처럼 날쌔 사슴 한 마리가 다른 사슴들과는 약간 떨어져 살고 있



었습니다. 그 사슴의 털은 금처럼 반짝 반짝 빛났으며 네 발 또한 니스를 칠한 듯 윤이 났습니다. 뿔은 은빛으로 둥글게 말린 모양이었고 눈은 보석처럼 빛났습니다.

이 황금 사슴이 연한 풀뿌리를 우아하게 뜯고 있을 때, 갑자기 망고 숲을 울리는 비명 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깜짝 놀라 강가로 달려가 보니 그 불행한 상인의 아들이 물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요! 겁내지 마세요. 곧 구해 줄게요.” 사슴은 강물로 뛰어들어 급류를 헤치고 가까스로 청년에게 닿았습니다. 그리고는 청년을 등에 메고 안전하게 강가에 내려놔줍니다.

상인의 아들은 이미 기진맥진한데다 몸도 쇠약해진 상태였습니다. 그가 정신을 잃고 해매던 사흘 동안, 사슴은 야생 과일을 먹이며 밤낮으로 그를 돌봐 주었습니다. 마침내 청년이 회복되자 사슴이 말했습니다. “숲에서 나가 베나레스로 가는 길을 알려 주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왕과 왕족들에게 황금 사슴이 이 숲에 살고 있다고 절대 말하면 안 됩니

다. 만약 그들에게 알려지면 곧바로 날 잡으러 올 테니까요.” 청년이 흔쾌히 약속하자 사슴은 그를 베나레스로 가는 길에 데려다 줬습니다.

그날 아침, 베나레스의 왕비인 카마는 꿈속에서 인간의 말을 하는 황금 사슴을 봤습니다. 왕비는 ‘분명히 그런 동물이 존재할 거야. 그렇지 않으면 그런 꿈을 꿀 리가 없잖아’ 하고 생각하고는 브라마닷타 왕에게 가서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황금 사슴을 꼭 갖고 싶다며 만약 구해 오지 않으면 죽어 버리겠다고 얘기했지요.

이건 왕비의 속임수입니다. 어쨌든 그녀는 조만간에 죽게 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큰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왕은 이 세상 대부분의 남자들처럼 아주 멧청했습니다. (대중 웃음) 그는 왕비가 정말 죽을까 봐 걱정했어요. 사실 왕을 위해 죽는 것이라면 그런 대로 이해가 가지만, 고작 사슴 한 마리 때문에 죽는다면, 아무리 그게 황금 사슴이라 해도 너무 웃기는 얘가지요! (대중 웃음) 그러나 왕은 거기에 속아넘어갔습니다. 어쨌든 이 얘기를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비단 여러분만이 아니며, 집에서 누가 진짜 주인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옛날 부처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오늘날 여성들이 시간을 허비하고 온갖 시위 유세를 하면서 남녀평등과 여권(女權)을 주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성은 결코 남성과 평등할 수 없습니다. 남성보다 훨씬 우월하니까요! 정작 평등을 내걸고 싸워야 할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그런 우매한 여성들에게 이제 그런 일은 그만두라고 하십시오. 우리 여성의 지위를 떨어뜨리지 말라고 하세요. 우리가 우월한데 무엇 때문에 평등해지려고 싸워야 하지요? (대중 웃음)

왕은 즉시 현인들을 불러 그 진귀한 황금 사슴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그런 사슴이 있다고 힘주어 말은 했지만 어디에 있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전령에게 화려하게 장식한 코끼리와 많은 돈을 팔려 보내며 온 도시를 살살이 뒤지라고 했습니다. “누구든 황금 사슴의 소식을 아는 자에게는 이 코끼리와 금화를 포상하겠노라” 하고 선포했지요. 그러니 누가 진짜 주인인지 알겠지요? 그는 왕비를 위해 그 많은 돈을 썼습니다. 아마 당시 왕비는 이미 늙었을 텐데, 왕비의 권력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커졌나 봅니다.

이에 백마를 탄 전령이 온 도시를 달리며 왕의 명령을 큰 소리로 하달했습니다. 마침 베나레스에 도착한 상인의 아들은 그 소식을 듣고는 전령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왕께서 찾고 있는 황금 사슴에 대해 알고 있소. 날 왕께 데려다 주시오.” 전령은 상인의 아들을 궁전으로 데려가 알현을 청했습니다. “폐하, 이 사람이 황금 사슴이 있는 곳을 안다고 합

니다.” 왕은 매우 기뻐하면서 얼른 그곳으로 데려가 달라고 했습니다.

왕은 이 제보자와 함께 대부대를 이끌고 황금 사슴이 살고 있는 숲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숲에 도착했을 때 상인의 아들이 말했습니다. “폐하, 바로 저 꽃이 만발한 망고나무 숲속에 황금 사슴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자 왕이 명령했습니다. “숲을 에워싸고 활을 준비하라. 그 누구도 절대 사슴을 놓쳐선 안 된다.” 왕은 직접 말을 타고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사슴을 잡으러 갔습니다. 자, 이제 왕이 된다는 게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지 알겠지요? (스승님과 대중 웃음)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던 사슴은 요란한 소리를 듣고는 즉시 경계심을 갖고 일어났습니다. 멀리 않은 곳에 왕이 있고, 그 근처에 부대와 상인의 아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는 생각했지요. ‘왕이 있는 곳으로 가기만 하면 안전하겠구나. 그가 있는 곳으로 가자.’ 그리고는 바람처럼 날쐬게 왕이 있는 곳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왕은 사슴이 다치면 훨씬 쉽게 잡겠다고 생각해서 그 즉시 활을 당겨 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자 사슴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대왕 폐하, 잠시 고정하시고 손에 든 활이 날지 못하도록 하소서.”

왕은 맑게 울려 퍼지는 사슴의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활과 화살을 내렸습니다. 인간의 말을 하는 사슴을 아무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병사들과 다른 사람들도 놀라서 그 주변에 몰려들었지요. 사슴은 왕에게 다가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물었습니

다. “폐하, 제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누가 알려드렸습니까?”

그래서 왕은 상인의 아들을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이다.” 사슴은 고개를 들어 배신자를 바라보고는 슬프게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을 구해 주느니 차라리 통나무를 건져내는 게 나을 뻔했군요.” 그가 배신자에게 이렇게 꾸짖자 왕은 깜짝 놀라 사슴에게 물었습니다. “이 자가 그대에게 무슨 잘못이라도 했습니까?” “폐하, 전 물에 빠진 이 사람을 강에서 건져 안전한 곳에 데려다 놓고 사흘 밤낮으로 간호해서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제가 있는 곳을 말하지 말라고 부탁을 했고, 그도 굳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배은망덕한 행위 때문에 이렇게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상인의 아들은 포상금에 눈이 어두워 생명의 은인을 팔았던 겁니다.

이 말을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난 왕은 상인의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넌 죽어 마땅하다!” 왕이 활과 화살을 들어 배신자를 겨냥하자 상인의 아들은 두려운 나머지 사지를 덜덜 떨며 무릎을 꿇고 자비를 청했습니다.

곤경에 처한 그를 보고 사슴은 불쌍한 마음이 들어 왕에게 청했습니다. “부디 그를 놓아주십시오. 이 비열한 자의 피로 폐하의 마음을 더럽히지 마시고 그냥 원래의 약속대로 포상금을 줘서 돌려보내십시오.” 왕은 잠시 망설이다가 사슴의 간청에 따라 자비를 베풀기로 했습니다. “너는 이 고귀한 사슴 덕분에 두 번이나 목숨을 건졌다. 당장 이곳에서 멀리 떠나 다시는 이 나라로 돌아오지 마라. 다시 잡히는 날이 네 제삿날이 될 것이야” 상인의 아들은 쏜살같이 멀리 숲속으로 사라져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고귀하고 지혜로운 사슴은 다시 왕에게 고개를 돌려 말했습니다. “대왕 폐하, 승냥이와 새들의 울음소리는 쉽게 알아들을 수 있지만, 인간의 말은 종종 교활함으로 가득 차 있어 친구로 생각했던 사람이 훗날 배신하기도 합니다.” 사슴의 지혜와 총명함에 탄복한 왕은 상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황금 사슴이여, 그대의 소원을 말해 보라. 무엇이든 들어주겠노라. 설령 이 왕국 전부를 잃는 한이 있어도 그대의 소원을 들어주겠노라.”

사슴은 깊이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폐하, 제 유일한 청은 폐하의 왕국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영원히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왕은 사슴의 자비로운 마음에 감동해 이를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날부터 나라 안의 어떤 동물이든 해치는 자는 엄한 벌에 처하겠노라고 선포한 왕은 사슴과 함께 베나레스로 돌아왔습니다. 카마 왕비는 꿈에서 본 멋진 황금 사슴을 보고 떨 듯이 기뻐하며, 은종 소리처럼 아름다운 사슴의 얘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황금 사슴이 왕과 왕비와 함께 꽤 오랫동안 베나레스에 머무는 동안 도시는 아름답게 꾸며졌고, 황금 사슴에게 경의를 표하는 온갖 축제들이 열렸습니다. 그 후 사슴은 정든 숲으로 되돌아가 남은 여생을 평



화롭게 살았습니다. (대중 박수)

이 이야기는 아주 훌륭합니다! 우리 인간이 이 황금 사슴의 고귀한 품성을 조금이라도 닮는다면 세상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 것을 챙기려고 합니다. 심지어 수행에서도 탐심과 이기심을 버리지 못하고 더 많은 축복을 얻기 위해 남들을 희생시키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세속에서 남의 재산을 뺏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일입니다! 우리는 이제 수행자이기 때문에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스스로 벌어서 얻어야 합니다.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스승의 축복과 인도, 도움을 청해도 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그래도 괜찮지만, 다른 사람의 행복과 편의를 해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점을 꼭 명심하십시오.

인생의 매 순간마다 우리는 항상 신중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이나 이익을 위해 여러분 자신을 항상 희생하라고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최소한 공정해야 한다는 거지요. 수행자인 우리가 공정하지 않다면 어떻게 바깥 사람들이 우리에게 공정하길 기대할 수 있으며, 또한 모두에게 평등한 세상이 되길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여기에서조차 공정할 수 없다면 외부의 다른 사람에게 공정하리라고는 믿을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런 제자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더구나 그 사람이 나와 함께 공부한 지 오래된 사람이라면요. 새로 입문한 사람이라도 그게 핑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나의 비디오 테이프나 오디오 테이프, 책 등 모든 것을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 입문해

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 온 것이지요.

여우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그건 여러분 문제입니다. 그러나 단체의 이익을 희생시키진 마십시오. 다른 동수들의 축복을 훔쳐 가기 위해 여기 온 게 아닙니다. 바깥 사람들처럼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옆 사람과 경쟁해선 안 되지요. 외부 사람이라 해도 극장에서 제일 좋은 자리에 앉으려면 그만큼 값을 치릅니다. 우리보다 훨씬 공정하지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최상의 자리를 얻으려면 수행을 하고 신실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여기에선 그 어떤 것도 훔치려 하지 마십시오. 나는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누구의 것인지 난 다 압니다. 이곳에서 무언가를 훔칠 생각이라면 오계를 집어던지고 더 이상 귀찮게 찾아오지 마십시오. 이곳은 여러분이 수행자로서 가장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장소인데, 여기서 내게 그런 모습을 보여 주지 못한다면 어디 가서 보여 주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대가를 치르든 우리는 결코 우리의 존엄성과 고귀한 목적을 잊으면 안 됩니다. 수행을 열심히 하고 신과 스승을 사랑하면 신은 압니다. 스승도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사슴조차 인간보다 훨씬 낫다는 걸 이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책에 나오는 금빛 동물들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들이 단지 부처의 전생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행동은 바로 그들 내면의 등급을 나타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만큼 높지 못하다면 자신이 인간이라는 점이 큰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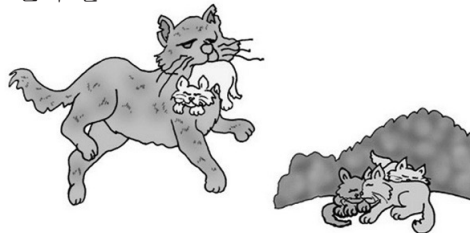
사실 나는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에 왜 자만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문이나 라디오, TV를 보면 사람을 구해 낸 고귀한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종종 나옵니다. 때론 새끼를 구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던지기도 하지요. 어떤 고양이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어미 고양이는 4마리의 새끼 고양이를 구하기 위해 불타는 집 속에 네 번이나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그 때문에 온몸이 불에 타고 눈이 멀었지요. 그 어미 고양이는 화상을 입고 눈이 멀

고 의식도 잃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새끼를 모두 구해냈습니다.

고양이는 매우 독립적인 동물입니다.

새끼를 배면 수컷이나 다른

고양이의 도움 없이 혼자 새끼를 키웁니다. 나는 이 부근에서도 많은 고양이들을 봤는데, 그들은 새끼들을 위해 온갖 맛있는 음식들을 물어




다 줍니다. 그리 듣기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맛있는 음식인 쥐나 다른 먹이들을 새끼에게 가져다 줍니다. 자기는 파리나 벌레 같은 자질 구레한 것을 먹으면서 말이지요. 난 육식을 찬성하진 않지만 고양이를 탐할 수 없었습니다. 고양이는 원래 그런 것을 먹는 동물이고, 또 자기는 쓰레기통을 뒤질지언정 새끼를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 영양가 있는 먹이들을 먹이는 그 헌신적인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눈으로 직접 본 일입니다. 채식을 하지 않는다는 쥐를 살생한다는 것으로 고양이를 뭐라 나무랄 수 없었습니다. 어미 고양이의 사랑에 감동만 느껴졌습니다.

고양이를 생각할 때마다 아직도 그 사진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나는 왜 우리 대부분이 동물을 저급한 존재라 여기며 학대하는지 모르겠습

니다. 많은 동물들이 아주 고귀합니다. 아주 훌륭하며 같은 동류 뿐 아니라 다른 동물들도 사랑으로 돌보지요. 가끔 개나 고양이가 그들의 친구를 구하기 위해 위험한 강으로 뛰어드는 것을 봤을 겁니다. 인간이든 개나 고양이든, 친구를 위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들지요.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극소수만이 감히 그렇게 할 뿐, 위험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자기 생명까지 던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동물들은 자기 목숨까지 버리면서 사랑을 실천하지요.

그러므로 우리 인류가 동물들도 가지고 있는 이 타고난 자비와 사랑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없다면, 교만할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측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식을 하는 겁니다. 동물들이 정말 고귀하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진정 인간의 자질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처럼 영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동물로부터 배우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물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좋은 품성을 기억하기 위해 배우는 것이지요. 그러면 부끄럽게도 동물의 수준보다 떨어지는 존재가 되진 않을 겁니다.

우리는 고귀한 성인의 등급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항상 자비와 사랑, 이해, 무아의 희생정신을 지녀야 합니다. 선 행사에서나 집, 슈퍼마켓, 그 어디에서든 똑같습니다. 설령 보는 사람도 없고 우리의 선행을 기록하거나 우리 노력을 칭찬하는 사람이 없는 산속에 있더라도 우리는 계속 자신의 고귀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지는 스스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도 알고 계시지요. 



감로범어

칭하이 무상사/ 1992. 6. 24. 미국 뉴저지 (원문 영어)

비디오 테이프 No. 259

동물의 존재에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 역시 이 지구의 주민이므로 우리에게 그들을 죽일 권리가 없습니다. 어떤 연구에 따르면 동물들이 사람의 병을 치료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아마 그건 그들의 사랑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활의 불편함이나 사람들에게 대한 그들의 짐착에도 불구하고 개나 고양이를 키우고 싶어합니다. 그들은 아주 사랑스럽고 또한 어느 정도는 마음을 달래주므로 사람들은 마음이 즐거워져 동물들을 키우게 됩니다.



애완동물을 자신처럼 사랑하라

청하이 무상사/ 2001. 6. 6. 미국 플로리다 (원문 영어)

비디오 테이프 No. 714



개를 키우려면 좋은 위생조건과 음식, 사랑을 주어 적어도 자기 자신처럼 돌봐야 합니다. 개는 가족의 한 일원으로, 단지 모습만 다를 뿐입니다. 개를 데리고 산책을 나갈 때면 언제나 개의 ‘흔적’을 처리해야 합니다. 아니면 비닐봉지를 가져가서 받아내야 다른 사람이나 다른 개에게 병을 퍼뜨리거나 오물을 묻히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의 병든 개가 사방에다 배설한 것을 다른 개가 밟으면 그 개도 병에 걸립니다. 그러니 개를 산책시키고 집으로 데리고 들어올 때는 온몸을 깨끗이 닦아 주십시오. 여러분에게 그 시범을 보여 주겠어요.

행주나 수건 같은 것을 가져오십시오. 지금 이걸 너무 작군요. (스승님이 갖고 계신 수건을 보여 주시다.) 시범용이니깐 그냥 넘어가지요. 행주가 더 질기고 잘 찢어지지 않아서 좋습니다. 개의 온몸을 구석구석 깨끗이 닦아 주어야 합니다. 혹시 냄새가 날지 모르니까요. 전신을 위에서부터 밑까지 깨끗이 닦아 주세요. 우선 다리를 닦아 주세요. (스승님이 푸들을 닦아 주시다.) 그리고 네 발바닥을 모두 닦고 ‘큰 것’과 ‘작은 것’을 보는 곳을 닦아 준 다음 집에 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개한테 붙은 병원균이나 세균이 깨끗이 소독됩니다. 나는 레몬수를 사용하지만 여러분은 다른 것을 사용해도 됩니다.

레몬수나 식초 희석수로 집을 청소하면 화학 성분이 남지 않습니다. 개는 바닥에서 자고 먹이를 먹거나 떨어뜨리면 바닥을 핥는데, 바닥에 남은 화학세계 성분을 먹으면 죽거나 병에 걸리게 되지요. 그러면 여러분



은 가진 돈을 다 털어 의사에게 주거나 그만한 시간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아니면 개를 갖다 버리든가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어리석음, 부주의, 무자비한 마음을 모르고 오히려 개 탓을 합니다. 많은 개들이 아무 죄도 없이 동물 보호소에서 생을 마감하지요. 그건 인간의 잘못과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개를 키울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때로 교외로 차를 몰고 나가면 픽업 트럭들을 보게 되는데, 그들은 플로리다 여름의 피약별 아래 지붕도 없는 짐칸에 개들을 몇 마리씩 싣고 갑니다. 그 차는 그냥 쇠덩어리로 되어 있어 매달릴 곳도 하나 없어서 개들은 곧 더위를 먹습니다. 또 가는 동안 내내 이리저리 흔들리고 때로는 트럭 뒤에서 떨어지기도 하지요.

아마 그 개들은 그런 상황에 익숙해 있을 겁니다. 얼마나 그런 상황에 익숙해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집에 돌아오면 머리가 흔들릴 겁니다. 그래도 두통이 심하다고 말도 못 하지요. 그렇게 오랫동안 픽업

뒤에 타고 있었다면 여러분이라도 두통으로 고생했을 겁니다. 여러분은 그나마 머리를 감쌀 긴 머리카락이라도 있지만, 어떤 개들은 털이 짧거나 아예 없어서 정말 가엾습니다. 이런 광경을 볼 때면 난 사람들이 개를 키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는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다정하며 충성스럽습니다. 여러분이 위험해지면 언제고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내던지지요. 보호본능을 발휘해 아무런 원망도 없이 언제라도 주인을 위해 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개 키울 자격이 없습니다. 동물들을 그렇게 다루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내 가슴은 찢어지는 듯합니다. 또 누군가 여러분에게 짐승이라고 하면, 그건 욕설로 아주 저급하고 못되고 어리석다는 뜻인데, 사람이 그 정도로 어리석을 수 있다는 걸 상상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더 어리석고 무지합니다.

물론 어떤 개들은 밖에서 길러야 합니다. 그래도 개에 벼룩이 생기지 않도록 잘 돌봐 줘야 합니다. 예방약이 있는데, 그렇게 비싸지도 않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방충약을 뿌리고 벼룩 방지제를 뿌려 주면 개도 고통스럽지 않을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이면 족합니다. 아니면 벼룩을 없애는 샴푸 같은 것으로 씻어 주면 되지요. 그러나 죽이는 것보다 예방하는 편이 낫습니다. 살생을 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것이 아무리 작은 벌레나 벼룩이라도 말이지요.

개를 건강하고 청결하게 해줌으로써 그런 살생을 막도록 하십시오. 잔디가 깨끗해 보여도 그곳에는 세균이나 해충, 해충 알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있던 동물들을 안에 데려오면 집도 바깥처럼 더럽게 되지요. 또 많은 사람들이 신발을 신고 다니는데, 그것 또한 개가 병드는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의 신발이 더럽기 때문이 아니라 집 밖에서 신발에 더러운 것을 묻혀 오기 때문이지요. 때로는 병든 개의 배설물과 같은 것들이 자동차 바퀴에 묻어 오기도 하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집안으로 옮겨 오면 개가 마루나 신발을 훑다가 병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동물을 기르고자 한다면 마루에서 자도 될 정도로, 혹은 마루를 훑어도 안심할 정도로 집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식초와 물을 반씩 섞은 물로 집안을 청소해도 됩니다. 반씩 섞은 물로 구석구석 닦아 청결히 하고 냄새를 없애면, 설령 개가 오줌을 똥터라도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됩니다. 개는 자기 오줌 냄새를 맡으면 다음 번에도 그 자리에 오줌을 싸지요.

이러한 것들은 몇 가지 본보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물을 키우고 싶으면 먼저 그 동물을 돌보는 법에 대해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또 그 동물이 자신의 성격이나 생활방식에도 잘 맞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사람들이 개나

고양이를 버리는 데는 그런 이유도 포함됩니다. 서로 맞지 않기 때문이지요! 할머니들처럼 기운도 없고 약한 사람이 지나치게 활동적인 개를 키우면 다루기가 버거울 겁니다. 조련 방법이나 다루는 방법도 모르는 사람이 제멋대로인 개를 키운다거나 같이 놀아 주는 걸 좋아하지도 않고 그럴 시간도 없는 사람이 장난치기 좋아하는 개를 키운다거나 하면 결국 개를 갖다 버리게 됩니다. 그리곤 개만 나쁘다고 생각하겠지요.

여러분에게 적합한 개나 동물은 종류별로 많이 있지만, 그 개나 고양이를 키우기 전에 먼저 공부하고 또 자기가 돌보기에 무리는 아닌지 알아봐야 합니다. 자신에게 너무 벅차다면 아예 키우지 않는 게 낫습니다. 스스로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그뿐이지요. 여러분이 모든 동물을 평등하게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단지 동물을 사랑하는 법과 어떤 동물을 사랑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랑이 골칫거리로 변하지도 않고 쌍방에게 고통이 되지도 않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중 한 사람이 내 개를 놓치는 바람에 그 개는 도망가다 길을 잃었습니다. 그 일로 나는 오랫동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므로 동물을 키우려면 어떻게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럴 수 없다면 그에게 더 좋은 집을 찾아 주십시오. 우선은 데리고 있다가 더 좋은 집을 찾아 주십시오.



오, 애완동물 가게에 광고를 내면 개에게 알맞은 사람을 찾아 줄 겁니다. 그때 보내 주면 됩니다. 또 개를 줄 때는 팔지 말고 친구나 선물로서 주십시오. 여러분의 개를 좋아할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개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개의 개성을 광고지에 자세히 실어 놓으면 그런 개에게 딱 맞는 책임자가 나타나 조만간 그 개를 데려갈 겁니다.

개를 동물 보호소에 보내지 마십시오. 그들은 하루 만에 개를 죽일 테니까요. 때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꼭 하루는 아니라도 하루에서 일주일 사이에 그렇게 합니다. 길어 봤자 2주일이니 개는 거기서 오래는 못 버팁니다. 그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상황이 이렇다는 건 확실히 아십시오. 나는 여러분의 동물이 동물 보호소에 가면 빠르면 하루 만에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바랍니다. 그러나 죽이지 않는 보호소도 있으니, 그런 보호소라면 개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역시 개의 개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줘야 나중에 그 보호소에서 개를 위해 그런 성격의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을 찾아 줄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동물을 내다 버리지 마

십시오. 동물도 우리처럼 살아 있는 생명체입니다. 여러분이 동물의 눈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서로 동등하며 똑같다'는 것을 깨닫고 온몸에 전율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상상지도 못했던 깨달음을 얻을 겁니다. 나는 동물이 여러분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꽃이나 나무, 그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지요. 보세요, 얼마나 착합니까! (스승님이 무릎에서 잠자고 있는 푸들을 가리키시다.) 이런 개를 어떻게 버릴 수 있겠어요? 이렇게 사랑스러운데 말이예요. 



칭하이 무상사 TV 프로그램

지 역 : 필리핀 팔라완 섬
방송국 : TV 7번 채널/ ABS & CBN
주 제 : 칭하이 무상사의 비디오 강연
시 간 :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 10시

지 역 : 필리핀
방송국 : DYPR AM 라디오 방송국 (765khz)
주 제 : 칭하이 무상사의 오디오 강연
시 간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7:15 - 7:30 방송

(주: DYPR 방송국은 필리핀 최대 방송국이며,
이 방송은 주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도 청취 가능함.)

칭하이 무상사의 다른 TV 프로그램에 대한 최신 방송 시간표에 대해서는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www.godsdirectcontact.net/events/tv.htm>

백화림에서 스승님을 그리다

차오루 동수/ 포모사 타이베이 (원문 중국어)

꽃앞으로 뒤덮인 오솔길을 건너나니
 하늘하늘 흘날리는 꽃앞은
 여리고 순결하고 부드러워
 마치 당신의 발자국인 양
 내 앞으로 다가서네

구불구불한 오솔길 따라 그윽한 향기 전해 오고
 두 눈을 감으니
 당신의 여유로운 풍채에 취해 드네
 꽃앞은 춤을 추듯 당신 주위를 맴돌고
 당신의 달콤한 미소, 상쾌한 향기 되어 내 마음에 퍼지네

뒤통산에 오르는 길
 당신의 우아한 모습, 나와 함께 동행하고
 세속에 물든 내 마음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끝없는 우주로 솟아오르네

계속 앞을 보고 걷노라니
 근심걱정, 사랑과 미움은 잊혀져 가고
 오로지 당신뿐...
 영원의 빛만이 내 마음에 스며드네



공평하게 사랑하라

예비 입문자 허먼 웡/ 말레이시아 페낭 (원문 영어)

나의 인생을 함께 나눴던 개들로 인해 나는 동물의 감정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배울 수 있었다. 약 3년 전 동물학대 방지협회로부터 강아지를 한 마리 받아 온 나는 그에게 모건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고 많은 사랑과 관심을 보여 주었다. 물론 모건도 행복해하며 나를 잘 따랐다. 하지만 1년 후 음력 설 기간에 모건은 이웃들의 폭죽 소리에 놀라 도망가 버렸다. 나는 슬픔에 빠져 사방을 찾아다니다가 얼마 후 다시 강아지를 구해 베이지라는 이름을 붙여 줬다. 그러다 다시 모건을 찾게 되어 두 마리를 같이 기르게 되었다.

베이지는 매우 못생긴 반면 세퍼드인 모건은 검은색과 황갈색이 어우러져 아주 멋졌다. 하지만 베이지는 말도 잘 듣고 충성스러우며 내 기대에도 잘 맞아 맛있는 밥도 잘 먹고 집도 잘 지켰지만, 모건은 맛있는 음식만 찾고 장난치는 것만 좋아했다. 그래서 나의 관심도 자연스럽게 베이지 쪽에 더 쏠리게 되었다. 이런 일이 얼마간 계속되자 모건은 내게 등돌려 앉게 되었고(이건 내가 싫다는 뜻이었다), 성질 또한 날카롭고 자신감이 없어졌다.

이 일들을 통해 나는 개들도 사람처럼 감정이 있으며 개를 키우는 건 아이 키우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

을 알게 되었다. 개가 무슨 관심을 필요로 하겠냐는 생각 때문에 모건에게 별다른 신경을 써 주지 않았던 2년여 동안 베이지에게 쏟아지는 나의 사랑과 관심을 모건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나는 전혀 깨닫지 못했다. 그에 따라 모건은 성장하면서 불안하고 혼란스러워하며, 내가 왜 자신에게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마치 버려진 아이처럼 홀대를 당하는 느낌이었을 것이다. 비록 개였지만 모건은 내가 처음 데려올 때 어린 강아지였기 때문에 항상 나를 아버지처럼 여겼었다. 그런데 내가 베이지를 편애하자 이것이 모건의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쳐 현재의 성격을 조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모건은 이제 매우 신경질적이 되었고 또 왜 덜 귀여움을 받게 됐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이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은, 개들도 어느 정도 감정을 느끼고 그에 반응하며 매우 예민한 동물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인들이 개들을 동등하게 사랑해주고 감정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존중해 주는 건 매우 중요한 부분임에 틀림없다. 개도 인간처럼 질투나 분노, 혼란 등 많은 감정을 표현한다. 개 역시 인간처럼 운회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런 사실은 조금도 놀라울 게 없다. 🌸

떠돌이 개 의료단

쉬 치원 사저/ 포모사 타이베이 뉴스그룹

어느 토요일 아침, 나는 타이베이 시립 형안 간호센터를 찾았다가 '포모사 동물 보조 및 치료협회'가 최초로 훈련시킨 6마리의 '의사견'들이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날 국립 타이베이 간호대학의 조교수 예밍리 씨와 다른 간호 팀들은 이미 그곳에서 의사견과 그 주인이 오길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

의사견들이 진행하는 보조 치료 프로그램은 예밍리 교수와 대만 국립 과학위원회의 2년 계획 합작 프로젝트다. 예 교수는 노인 환자의 상태에 따라 그에 맞는 개를 배정하고 1대 1의 고정적인 관계를 맺어 16주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동물 보조 치료(Animal-Assisted Therapy; AAT)를 진행한다.

“AAT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조건에 부합하는 특수한 동물을 환자의 전체 치료과정에 투입시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는 의학 및 간호 관련 전문가들이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항목을 진단하고 동물 보조를 통해 환자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동물 보조치료 프로그램이 환자들에게 애완동물을 키우도록 장려하거나 맹인견 같은 서비스 동물을 훈련시키도록 권하는 건 아닙니다. AAT의 이념은 인간과 동물간의 상호작용을 강화함으로써 환자들의 육체와 정신, 사회성 그리고 영성 방면에서의 성장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라고 예밍리 교수는 말했다.

현재 포모사 동물 보조 및 치료협회와 협력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타이베이 시립 제일아동 센터에서는 2, 3십 명의 뇌성마비 아동들이 의사견과의 접촉과 놀이를 통해 지체기능과 재할 및 의사소통 능력이 현저히 개선되었다고 말한다. 심지어 한 의사견은 자폐아에게 웃음을 되찾아 주고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하는 등 성과를 보이기도 했다.

협회 이사장인 천 시우이 씨는 더 많은 개 주인들이 현재 무료로 시행되고 있는 의사견 훈련 과정에 참여하길 기대했다. 이 사회봉사 활동은 의사견들이 나올 때마다 주인을 동반해야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개 주인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천 이사장은 3년 간의 노력 끝에 현재 28마리의 의사견들을 확보하게 되었지만, 점점 더 많은 의료기관들이 AAT를 수용함에 따라 더 많은 의사견들이 필요한 현실이다.

주인을 동반한 의사견과 노인 환자들과의 1대 1 활동을 지켜보며, 나는 개 주인의 진실한 사랑과 주인에 대한 개들의 충성심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노인 환자들이 인간과 개 사이의 사랑과 믿음이 충만한 관계에 완전히 몰입하면서 자연스레 그들의 내밀한 감정을 표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예를 들면, 한 열성적인 할머니는 담당 의사견이 나타나자, 그 즉시 불편한 몸을 흔들며 휠체어에서 거의 몸을 일으킬 정도였다. 원래 그 의사견의 이름은 ‘요요’였지만 할머니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곤 큰 소리로 ‘도도’라고 부르는 바람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즐겁게 만들었다. 그 할머니는 이번 만남을 위해 특별히 예쁜 옷을 차려 입고 나오셨는데, 매주 토요일마다 있는 의사견과의 만남을 고대하는 흔적이 역력했다!

나는 천 이사장에게 떠돌이 개를 의사견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게 가능할지 물었다. 만약 떠돌이 개들이 사회 봉사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면, 그들의 생존권도 당연히 요구할 수



개 주인이 의사견인 ‘숨숨’에게 주 할아버지와 악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의사견 요요의 주인의 도움으로 불편한 손으로나마 요요를 어루만지고 있는 추앙 할아버지.



언어 장애가 있는 한 할머니가 의사견인 ‘원원’과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천 이사장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떠돌이 개 역시 무료 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 또한 사실상 의사견들은 전문 훈련을 마친 후 각자의 주인이 자신에게 적합한지, 자신들의 완전한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 더 중요한 것은 훈련에 참여한 개 주인의 경우, 반드시 사명감과 인내심, 그리고 언제라도 개의 부적절한 행동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떠돌이 개 역시 훈련을 거친 후에는 다른 의사견과 똑같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타이베이 시 동물 위생 검사소도 이미 포모사 동물 보조 및 치료협회와 함께 3년 간의 합동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6개월마다 한 차례씩 동물 보호소에서 20마리의 떠돌이 개들을 선정해 지원자들에게 이 개들과 함께 훈련에 동참해 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한다. 그러면 지원자들은 우선 떠돌이 개를 맡는 수속을 마친 후 의사견과 그 주인으로서의 무료 훈련 전 과정을 받게 된다. 이렇게 하면 3년 이내 ‘포모사 떠돌이 개 의료팀’이 정식으로 세워질 것으로 보인다. 천 이사장



장 할아버지가 솜솜 주인의 도움을 받아 굳은 손가락으로 솜솜의 머리를 빗기다.

은 만약 떠돌이 개들이 의사견으로 훈련될 수 있다면 떠돌이 개에 대한 생명 가치를 사람들에게 분명히 인식시켜 떠돌이 개와 사람 간의 관계를 개선시키고 동시에 떠돌이 개들이 생존권을 인정받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다. 🌻

주: AAT 사회봉사 활동 참여를 통해 떠돌이 개 의료팀의 일원이 되길 희망하는 분은 '포모사 동물 치료 및 보조협회'에 연락해 개의 입양과 훈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전화: 886-2-2392-4860 / 담당: Ms. 차이 페이원



나의 신기한 동물 친구

아러 사저/ 포모사 미아오리

내가 사는 집 근처의 산에는 다람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나는 언제나 그들과 친구가 되고 싶었다. 어느 날 다람쥐 한 마리가 집 밖에 있는 나무를 오르락 내리락하고 있기에 사과를 보여 주며 이것 줄 테니까 오라는 표시로 손짓을 했지만 다람쥐는 한번 쳐다볼 뿐 오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냥 사과를 대나무 줄기에 올려놓고 들어왔다. 저녁에 확인해 보니 다람쥐가 사과의 반을 먹은 상태였고, 다음날에는 나머지 사과도 사라졌다.


어느 날 나와 언니들은 도랑에 빠져 흠뻑 젖은 어린 다람쥐를 발견하곤 집에 데려와 드라이기로 말려 주고 매일 우유를 먹이며 키웠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다람쥐는 혼자서 구아바를 잡고 씹어 먹을 만큼 건강해졌다. 우리는 그 다람쥐에게 ‘치치’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치치는 사람을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고 우리 몸을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좋아했다. 우리 역시 치치와 노는 것이 즐거웠다. 치치는 조금 자라자 낮에는 바깥을 돌아다니다가 밤이면 늘 집으로 돌아왔다. 치


치가 처음으로 집에 돌아왔을 때 우리는 마침 비디오를 보고 있었는데, 모두들 그를 발견하고는 “치치가 돌아왔어!” 하고 기쁨의 함성을 지르며 서둘러 먹이를 가져다 주었다. 치치는 더 크자 우리 곁을 떠나 다른 다람쥐들과 함께 살았는데, 다른 다람쥐들이 인간을 경계하라고 가르쳤는지 예전처럼 우리랑 놀지 않았다. 그래도 매일 돌아와서 우리가 그를 위해 남겨 둔 사과나 구아바 같은 과일들을 먹었고, 가끔은 친구들과 함께 오기도 했다.

작은 새들도 우리가 치치를 위해 남겨 둔 과일을 먹으러 매일 놀러 왔다. 정월 초하루에 나는 나무 밑에 앉아 아침을 먹고 있었는데 많은 새들이 내게 날아왔다. 나무에 과일을 놓기 전이어서 새들은 큰 소리로 지저귀며 자신들의 존재를 알렸다. 나는 서둘러 사과를 몇 개 가져와 새들에게 주고는 주방에 있던 사람들에게 말했다. “새들이 배고프다고 소리치고 있어!” 친구들이 내가 새들의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생각하기에 난 그냥 내 멋대로 통역해 본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

그러자 친구들은 “아마 오늘 새들이 말한 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였을 거야!” 하고 농담으로 대꾸했다.

한번은 한 이웃이 자리만 비우면 다람쥐들이 집에 들어와 과일을 훔쳐 먹는다고 말하는 것을 듣곤 나는 몇 달이나 문 앞에 과일을 두었지만 장식품인 양 아무런 일도 없었다며 말했다. 그 말을 했을 때 나는 다소 의기양양한 상태였는데, 마치 나 자신이 특별하고 또한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처럼 느꼈던 것이다. 그러나 그날 집에 돌아오자 쟁반은 뒤집혀 있고 과일 여기저기에 다람쥐의 이빨 자국이 남아 있었다.

다람쥐를 통해 겪게 된 이 일은 생각의 힘에 대해 다시 한 번 일깨워 주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일단 마음에 떠올린 생각은 바로 현실로 나타난다. 이를테면, 내가 ‘다람쥐가 과일을 훔쳐 먹으러 온다’는 생각을 떠올리자 정말 다람쥐들이 왔던 것이다. 이는 자신의 보호막에 스스로 구멍을 내어 부정적인 힘이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번 일을 통해 나는 언제나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글라봄은 수행문답 

아힘사의 확장된 의미 동물 친구를 사랑하는 것


칭하이 무상사/ 1999. 5. 30. 핀란드 헬싱키 (원문 영어) 비디오 테이프 No. 663

질문: 많은 사람들이 동물을 멸시하며 함부로 학대하고 이용하고 별다른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물을 사랑하는데, 가능하다면 동물의 가치에 대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스승님: 예, 그래서 사람들에게 채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채식은 우리의 사랑을 우리보다 무방비하고 약한 형제자매에게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느님은 “너희의 친구로서, 조력자로서 이 모든 동물들을 창조했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동물을 먹으

라고는 하지 않았지요.

질문: 제가 채식을 하지 않아도 신과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스승님: 당신 스스로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둘 겁니다. 우리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누군가에게 고통을 준다면 결코 그 죄책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행복하지도 못하겠지요. 얼마간의 행복만 누릴 뿐입니다. 

효과만점! 채식으로 개 키우기

지양 춘 (원문 중국어)

먼저 왜 혁명적인 보도인지 설명하고자 한다. 과학적인 관점이나 일반 상식, 그리고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개는 육식성의 포유동물로 집을 지키는 가족’이라고 알려져 있다. 개의 이빨의 특징도 그렇고 개의 위산은 인간의 8~12배로 육류를 빠르게 소화시켜 체내에서의 부패를 방지하게 되어 있다. 이런 사실들로 보면 개가 완전 채식으로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건 믿기 어려운 일이다. 만약 나 자신이 이 주제에 대해 오랜 실험과 관찰을 거치지 않았다면, 개가 완전 채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게도 큰 의문으로 남아 있었을 것이다. 독자들이 오랜 선입견을 깨끗이 청산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쓴다.

나는 개를 좋아한다. 이 때문에 열심히 애써 연구했고, 그 결과 실험은 성공을 거두었다. 내 개들을 통해 채식이 개에게도 이롭다는 사실은 증명되었으며, 나는 또 4년 넘게 피부병을 앓고 있던 다른 사람의 개에게 채식을 시켜 치료하기도 했다. 그 개는 내 개보다 10배 이상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어떤 수의사나 약도 소용이 없었다. 처음 그 개의 주인은 개에게 채식을 시켜 보자는 내 제안에 황당해하며 재고할 여지도 없이 딱 잘라 거절했다. 그러나 이미 이런 장애를 예상했던 나는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랑과 인내심을 갖고 끈질기게 그를 설득해 마침내 나의 의견에 동의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나서 한 달여 정도 지나 그 개는 완전히 나왔다! 그 개가 오랜 고통에서 벗어난 것을 보고 너무나 기뻐기 때문에 이 글을 쓰게 된 것이다. 나는 이 인연으로 이 세상의 모든 개들이 오랜 병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살기를 희망한다.

모든 개 애호가들이 선입견을 버리고 내가 심혈을 기울여 실험 개발한 좋은 치료법을 시도해 본다면 많

은 치료비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큰 이로움은 사랑하는 개가 병으로 고생하는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보며 안타까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그런 경우 보통 주인들은 수의사의 농간에 속아 이용당하기도 한다. 내 친구의 경우, 늙은 개가 피부병이 심했는데 치료비로 2,600 달러나 썼어도 결국 개의 생명을 구하지는 못했다. 수의사는 그 후 그 개가 불치병이었다고 말했다.

그때 내 개 중 늙은 개 세 마리도 같은 병에 걸려 있었다. 그 중 가장 늙은 개는 피부에 큰 부스럼까지 많이 생긴 상태였다. 다행히도 우리 수의사는 보다 양심적이고 도덕적이어서 개가 너무 늙어 수술을 해도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해 줬다. 다른 두 마리의 경우 몸에 있는 반점들이 점점 커져 갔다. 그러다 2년이 지났고, 나는 친구의 경험을 듣고는 수의사도 별 다른 도움이 안 되며 오히려 개를 더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됐다. 나는 개를 살리기 위해 온갖 방책을 생각하다 결국 사람이든 개든 유일한 치료법은 채식뿐이란 생각이 떠올랐다.

처음에는 나와 똑같은 음식을 개에게 먹였다. 나는 매일 ‘손자들(나는 개들을 손자라고 부른다)’의 식사까지 많은 양의 음식을 요리했다. 2주가 지나자 개의 환부가 마르면서 개들은 예전과는 달리 수시로 그곳을 핥지 않게 되었다. 다시 2주가 지나자 그 부위에 새로 털이 나기 시작했고 모든 환부가 1달 내에 말끔히 나타났다. 의사가 수술을 거부했던 가장 늙은 개의 경우, 부스럼이 점점 작아지고 새로 나지 않았다. 현재는 모두들 건강하고 기운이 넘친다.

이제부터 우리 집에서 키우는 7마리의 개들에게 먹이는 간편하면서도 영양가 높은 채식음식에 대해 소

개하였다. 처음 3개월 동안은 개들에게 나와 똑같은 음식을 먹였다. 하지만 한 가지 불편했던 것은 내가 멀리 가게 되면 이웃에게 개를 맡기게 되었는데, 그동안에는 채식이 아닌 개 사료를 먹여야 했던 것이다. 그래서 포모사의 친척들을 만나고 돌아오면 2주를 넘긴 적이 없어도 그동안 내 손자들은 다시 피부병이 재발해 회복하는 데 한 달이나 걸렸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끓이지 않아도 될 음식을 찾기 위해 이것저것 먹여 봤는데, 얼마간의 실험과 관찰 끝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 개들은 이제 한층 건강해졌고 나 또한 일을 덜고 맘 놓고 여행을 가게 되었다.

후기

이 기사를 제출한 뒤 얼마 안 있어 나는 정말 놀라운 경험을 두 가지 했다. 피부병이 있던 개 한 마리는 어릴 때부터 귓병도 있었는데, 귀에서 심한 악취가 났다. 또 귓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던 그 개는 아주 사나워져 몇 년 동안이나 고생하면서도 치료를 하려온 수의사도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 우리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 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채식한 지 6개월 만에 귓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 그러나 개가 몰래 고기를 먹으면 귓병이 다시 재발했고 많은 시일이 걸려야 치유되었다.

부스럼이 많았던 늙은 개는 8개월 동안 채식을 하고 나자 큰 부스럼은 작아지고 중간 크기와 작은 크기의 부스럼은 터져 피고름이 나온 후 깨끗하게 나았다.

♣ 개 1마리당 1일 식사량

즉석요리용 귀리	1컵
100% 콩가루	1/4컵
대두 레시틴	1작은술
맥아	1작은술

· 푸른 채소, 당근, 해초 등 1/4컵 내지 1/2컵 (채소와 해초는 익혀 주면 잘 먹는다. 그러나 소량은 별도로 남겨 두어 잘게 잘라 날것으로 먹인다.)

· 위의 내용물을 섞어 약 30분간 적당량의 물에 담그면 된다.

참고

1. 콩가루를 끓이면 두유가 되는데, 냄새가 좋고 개들도 좋아한다. 그래서 내 경우, 멀리 갈 때만 콩가루를 날로 먹인다.

2. 가능하면 여러 가지 콩을 먹이는 게 좋다. 나는 종종 개들에게 얼룩 콩과 편두, 쥐눈이 콩, 땅콩을 먹인다. 물렁해질 정도로만 끓여 주면 개가 소화 흡수하기에 적당하다.

3. 원칙적으로 완전 채식을 먹이되 녹말과 단백질, 유지, 비타민 등을 충분히 갖춰서 먹인다. 개에게 필요한 영양성분은 인간과 유사하다. 단 주의할 점은 개에게 우유나 치즈, 계란, 생선, 육류, 가열된 기름 등을 주면 안 된다.

포모사 자유시보

2002년 4월 28일 일요일

수륙 구조대의 멋진 발대식

— 구조훈련에 헬리콥터 수직하강 착륙까지

[씨에 우송 기자/ 푸싱] 민간단체에 의해 조직된 '중화 수륙구조협회'가 어제 푸싱향 로푸교(橋) 밑에서 공

식적인 발대식을 가졌다. 또한 이날 각종 수상 구조활동 훈련도 행해졌는데, 그 중 헬리콥터 수직하강 착륙과 고



연합일보 - 이 수륙구조 대원들은 모두 완전 채식주의자들이다.



중국시보 - 중화 수륙구조협회 회원 발대식을 갖다.



잘 훈련된 중화 수륙구조협회 대원들이 밧줄을 타고 강을 건너고 있다.



무보트 급류 구조활동과 같은 고난도의 기술은 주변 물놀이를 하러 온 사람들의 갑탄을 자아냈다.

중화 수륙구조협회는 포모사 재난방지 및 관리법이 시행된 이래 국립소방서의 승인을 받은 최초의 구조대로서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에 의해 독자적으로 설립되었다. 어제 홍수대비 수륙구조 실전 연습에는 타오웬 소방서 서장 씨에 루추안 씨가 교련을 맡았다.

훈련에는 고무보트 수상 분열식, 헬리콥터 수직하강 구조, 수륙양용 구조차량의 이재민 후송, 고무보트를 이용한 급류 구조활동, 부상자의 수직 수송, 밧줄 충을 통한 구조, 계곡에서의 외출가교 설치, 고공 수직하강, 그리고 침단 지진 구조장비 전시 등이 포함되었다.

진열된 장비 중 가장 눈길을 끈 것은 다년간의 구조활동 경험에 기초해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가 연구 개발한 '칭하이 무상사 사랑의 바다 1호'였다. 이 수륙양용 구조차량은 홍수지역에서 구해 낸 이재민들을 바로 후송할 수 있다.

주: 중화 수륙구조협회의 발대식과 수륙 구조 실전 연습은 포모사 주요 3대 신문사를 통해 많은 지면에 걸쳐 보도되었을 뿐 아니라 포모사의 4대 무선 방송사인 타이완 TV, 차이나 TV, 차이니스 TV, 포모사 TV 그리고 TVBS-N, 산리 TV, 타이아이 TV 등 유선방송사의 저녁 뉴스에 방송되었다.

이 행사는 '예술과 영상' 제53편에 방영되었다.
인터넷 시청 관련 사이트:
<http://137.hichannel.com.tw> (중국어)

Quan Yin Web Sites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 (포모사-중국어 번체, 간체, 영어)
<http://www.smchbooks.com> (포모사-중국어, 영어, SM 경서조)
<http://www.godsimmediatecontact.com> (싱가포르-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kr> (한국-한국어)
<http://www.godsimmediatecontact.org> (일본-일본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id> (인도네시아-인도네시아어)
<http://www.godsdirectcontact-thai.com> (태국-태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net> (미국-중국어 번체, 간체,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 (미국-스페인어, 프랑스어, 영어, 중국어 간체, 번체)
<http://www.Godsdirectcontact.com/aulac> (미국-어울락어)
<http://www.spiritweb.org/Spirit/media.html> (미국-영어)
<http://www.Godsimmediatecontact.net> (미국-영어)
<http://www.godsimmediatecontact.net/aulac> (미국-어울락어)
<http://www.Godsimmediatecontact.org/video>
 (미국-Windows Media Video & Real Video; 다국어 지원)
<http://www.godsimmediatecontact.tripod.com> (미국-영어)
<http://www.contactdirectavecdieu.org> (프랑스-프랑스어)
<http://godsdirectcontact.rma.cz> (체코 공화국-체코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 (캐나다-Real Audio 지원, 영어, 어울락어)
<http://www.godsdirectcontact.de> (독일-독일어)
<http://www.direkter-kontakt-mit-gott.org> (오스트리아-독일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uk> (영국-페르시아어)
http://www.extra.hu/kozvetlen_kapcsolat_istennel (헝가리-헝가리어)
http://www.geocities.com/godsdirectcontact_2000 (폴란드-폴란드어, 영어, 어울락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IhavecometotakeyouHome>
 (『나는 여러분을 고향으로 데려가기 위해 왔습니다』 책 주문-영어)

E-메일로 잡지를 받아 보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ch/service/service.htm> (중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service/service.htm>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au/service/service.htm> (어울락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english/service.htm>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spanish/service.htm> (스페인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chinese/fan/service.htm> (중국어 번체)
<http://www.Godsdirectcontact.com/chinese/jian/service.htm> (중국어 간체)

『즉각 깨닫는 열쇠』 견본책 무료 다운로드 사이트 (50개 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publication/sample/sample.htm>
<http://www.direkter-kontakt-mit-gott.org/download/index.htm>
<http://www.godsdirectcontact.org/sample>



아프리카

★ 앙골라	센터	luandacentre@yahoo.com
★ 베닌	센터	229-383-982 smbenin@yahoo.fr
★ 카메룬	센터	237-9-865026 smcameroon@hotmail.com
★ 가나	센터	233-27-607-528 smghanac@yahoo.com
★ 케냐	센터	254-72-603953 atmoske@yahoo.com
★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 타운	센터	27-83-952-5744 capetowncentre@yahoo.com
더반	센터	27-31-368-7759 durbancentre@yahoo.com
요하네스버그	Mr. Gerhard Vosloo	27-11-880-0349 ghvosloo@mweb.co.za
	Mr. Gilbert Kamgain	27-82-754-3840 gkamgain@yahoo.com
★ 토고		
팔리메	센터	228-4-410-948
로메	센터	228-2-222-864 smtogo@yahoo.com
	Mr. David Chine	228-2-215551
★ 우간다		
캄팔라	Mr. Samuel Luyimbaazi	256-7764-9807 smchinghai@yahoo.com
★ 모리셔스		
포트루이스	Mr. Liang Dong Sheng	230-208-1758 smchmauritius@meloo.com
	Ms. Josiane Chan She Ping	230-242-0462 smchmauritius@meloo.com

아메리카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Ms. Mabel alicia kaplan	54-11-4-545-4640 mak@sminter.com.ar
★ 볼리비아		
산타 크루즈	Ms. Adalina da graca Munhoz	591-337-2039 adamunhoz@hotmail.com
트리니다드	Mr. Wu Chao Shien	591-4625964
★ 브라질		
벨렘	Mr. Wei Cheng Wu	55-91-223-9414
레시페	Ms. Salma Casierra Alvarez	55-81-3262912
상 파울루	센터	55-11-5579-11803884-3155 brcenter@hotmail.com
	연락인 사무실	55-11-227-4690228-7029 formax@ifxbrasil.com.br
★ 칠레		
라 세레나	Mr. Esteban Zapata Guzman	56-51-451019 laserenacenter@hotmail.com
산티아고	센터	56-2-6385901 chilecenter@hotmail.com
	연락인 사무실	56-2-6389229
★ 콜롬비아		

보고타	Mr. & Mrs. Jose Guzman Alonso	57-1-2261245
★ 코스타리카		
산호세	센터	506-2200-753
	Ms. Laura Chen	506-363-2748 lauracmesa@hotmail.com
★ 온두라스		
테구시갈파	Ms. Edith Sagrario Ochoa	504-2250120
★ 멕시코		
멕시코칼리	Ms. Sylvia Lagrange	52-686-568-4575 eternalmaster2002@yahoo.com.mx
멕시코 D.F.	센터	52-55-5752-7472/ 5639-3506 kamel@avantel.net
멕시코 주	연락인 사무실	52-55-5852-1256 teceneter@sinfon.net.mx
몬테레이	Mr. Roque Antonio Ledl Suffo	52-8-379-0897 mtycenter@starmedia.com
★ 니카라과		
마나과	Mrs. Pastora Valdivia Iglesias	505-248-3651 roxanavet@hotmail.com
★ 파나마		
센터	Ms. Maritza E.R. de Leone	507-236-7495 507-260-5021 mrleone@hotmail.com
★ 파라과이		
아순시온	센터	595-21-662895 paraguay_asuncion_10@yahoo.com
C.D. 이스트	Mr. Zhi-Lu Tsao	595-61-502034 jscmike@fnn.net
★ 페루		
쿠스코	Ms. Patricia Kross Canal	51-54-232682 cuscocentro@yahoo.com
리마	센터	51-1-4716472 lvalenciap@bonus.com.pe
	Mr. Edgar Nadal & Ms. Teresa de Nadal	51-1-4667737 edyter@viabcp.com
	Mr. Victor Carrera	51-1-2650310
푸노	Ms. Mercedes Rodriguez	51-54-353039 punocentroperu@yahoo.es
트루히요	Mr. Luis Rebaza	51-44-260871 larv@terra.com.pe
★ 살바도르		
산 살바도르	Mr. Manuel Menjivar	503-216-9413 quijano_manuel@yahoo.es
★ 트리니다드		
아일랜드	Mr. Ray Alibocus	1-868-637-1054 alibocus@tsstt.net.tt
★ 캐나다		
에드몬톤	Mr. Brian Hokanson	1-780-444-6568
	Mr. & Mrs. Dang Van Sang	1-780-963-5240 dangvansang@hotmail.com
킹스턴	Mr. Quang Thanh Le	1-613-384-3295
런던	센터	1-519-438-3702 uniself@yahoo.com
몬트리올	센터	1-514-277-4655
	Ms. Euchariste Pierre	1-514-277-2717 p_euchariste1@sympatico.ca
	Mr. Hung The Nguyen	1-514-494-7511 nguyenthehung40@hotmail.com
	Mr. & Mrs. Nai-Chi Hsu	1-450-647-4871
오타와	Mr. Armand Laplante	613-740-1017

청하이 무상사 뉴스 잡지 134호 53



	Ms. Youping Zhong	1-503-257-2437	★ 홍콩	센터	852-27495534
	youping320@yahoo.com			연락인 사무실	852-26378257
페닐페니아 :	Mr. & Mrs. Diep Tam Nguyen	1-610-352-7787			lovequanyin@hotmail.com
	DiepAshleyPa@AOL.com		★ 인도		
	Mrs. Ella Flowers	1-215-879-6852	봄베이	Mr. Suneel Ramaney	91-22-282-0190
텍사스 :				trust_god@rediffmail.com	
*오스틴	센터	1-512-396-3471	캘커타	Mr. Ashok Sinha	91-33-655-6741
	jjdawu@yahoo.com		★ 이스라엘	Mr. Yaron Adari	972-9-866-6881
	Mr. Dean Duong Tran	1-512-989-6113		yadari@zahav.net.il	
	tranduongdean@yahoo.com		★ 인도네시아		
*달라스	센터	1-214-339-9004	발리	센터	62-361-231-040
	DallasCenter@yahoo.com			smch_bali@yahoo.com	
	Mr. Tim Mecha	1-972-395-0225		Mr. Agus Wibawa	62-81-855-8001
	mechat@email.msn.com		자카르타	센터	62-21-6319066
	Mr. Weidong Duan	1-972-517-5807		smch-jkt@dnnet.net.id	
	water96@yahoo.com			Mr. Tai Eng Chew	62-21-6319061
	Mr. Jimmy Nguyen	1-972-206-2042		Ms. Lie Ik Chin	62-21-6510218
	DallasCenter@hotmail.com			finance1@uei.com	
*휴스턴	센터	1-281-893-8300		Ms. Murniati Kamarga	62-21-3840845
	Ms. Carolyn Adamson	1-713-6652659		hai@cbn.net.id	
	cadamson@houston.rr.com			Mr. I Ketut P. Swastika	62-21-7364470
	Mr. & Mrs. Charles Le Nguyen	1-281-251-8812	수라바야	센터	62-31-5612880
	DNguyen376@aol.com			ahimsasb@indosat.net.id	
	Mr. & Mrs. Robert Yuan	1-281-251-3199		Mr. Harry	62-31-594-5868
	robert.yuan@hp.com			harry_1@sby.dnet.net.id	
*샌 안토니오	Mr. Khoi Kim Le	1-210-558-6088	마겔랑	Mr. Njo Kwat Gone	62-293-367-031
	lethong@hotmail.com		말랑	Mr. Judy R. Wartono	62-341-491-188
버지니아 :	센터	1-703-941-0067		yudi_wartono@telkom.net	
	Mr. & Mrs. Hua Phi Anh	1-703-978-6791		Mr. Henry Soekianto	62-341-325-832
	anhly@hotmail.com		욕야카르타	Mr. Augustinus	62-274-588-105
*버지니아 비치	Mr. David Young	1-757-588-8468		t.adianingtyas@eudoramail.com	
	davidkyoung@hotmail.com		★ 일본		
워싱턴 :			군마	Ms. Hiroko Ichiba	81-27-9961022
*시애틀	Mr. Ben Tran	1-425-643-3649		truelove@mth.biglobe.ne.jp	
	benptran@aol.com		구마모토	Ms. Mochinaga Eiko	81-96-346-2928
	Mr. Edward Tan	1-206-228-8988		genesis@mb.infobears.ne.jp	
	edtan@usa.com		도쿄	Ms. Yukiko Sugihara	81-3-3307-1643
*요밍	Ms. Esther Mary Cole	1-307-332-7108		cal13840@pop07.odn.ne.jp	
	sumaemc@yahoo.com			Ms. Yoshie Takeda	81-90-3963-0755
★ 푸에르토리코				y-plus@f6.dion.ne.jp	
카위	Mrs. Disnalda Hernandez Morales	1-787-262-1874	★ 한국	출판사	031-772-9250
	disnalda@caribe.net			chinghai@unitel.co.kr	
샌주안	Ms. Shanti Ragyi	1-787-723-7138	영동	영동 센터	054-532-5821
	shantiragyi@hotmail.com		서울	서울 센터	02-577-2158
				quanyim@unitel.co.kr	
				유태인	02-795-3927
				이지자	02-599-1701
			부산	부산 센터	051-581-9200
아시아				chinghaibusan@hanmail.net	
★ 아르메니아	Mr. Armen Hovhannisyan	374-1-227303		송호준	051-957-4552
	armenhovhannisyan@hotmail.com			황상원	051-805-7283
★ 포모사				이원석	051-894-6645
타이베이	센터	886-2-2375-7527	전주	전주 센터	063-274-7553
	smchtpe@ms33.hinet.net			shc5824@hanmail.net	
	Mr. & Mrs. Loh, Shih-Hung	886-2-23756784		신현창	063-254-5824
	shloh@ndmctsgh.edu.tw			인천 센터	032-579-5351
미아오리	Mr. & Mrs. Chen, Tsan Gin	886-37-221618	인천	이재문	032-244-1250
	Mr. Chu, Chen Pei	886-37-724726		대구 센터	053-743-4450
까오슝	Mr. & Mrs. Zeng, Huan Zhong	886-7-7534693	대구		

	chinghaidaegu@hanmail.net	치앙마이 센터	
	053-633-3346	66-53-217080	
	053-767-5338	Ms. Siriwan Supatrchamnian	66-53-387126
	053-856-3849	하야이 센터	66-74-368329-30(c/o 155)
대전	대전 센터	콘캔 센터	66-43-261878
	김수동	Mr. Paisal Chuangcham	66-43-241718
광주	광주 센터		
	조명대		
	062-525-7607		
	062-394-6552		
	enlightenment@hanmir.com		
안동	안동 센터		
	김삼태		
	054-821-3043		
제주	제주 센터		
★ 마카오	센터		
	853-532231		
	macau_center@email.com		
	연락인 사무실		
	853-532995		
★ 말레이시아			
알로르 세타르	Mr. Chiao-Shui Yu		
	60-4-7877453		
조호르 바루	Mr. & Mrs. Chi-Liang Chen		
	607-6622518		
	supreme2@tm.net.my		
팔라룸푸르	센터		
	603-9287-3904		
	klsmch@tm.net.my		
	연락인 사무실		
	6012-259-5290		
	klgcp@hotmail.com		
페낭	센터		
	60-4-228-5853		
	pgsmch@pd.jaring.my		
	Mr. & Mrs. Lin Wah Soon		
	60-4-6420370		
	gym99@hotmail.com		
★ 몽골			
울란바토르	Mrs. Nergui Buzmaa		
	976-11-364352		
	zbadnaa@yahoo.com		
바가누르	Mr. & Mrs. Gursad Bayarsaikhan		
	976-121-21174		
★ 미얀마	Mr. Sai San Aik		
	951-667427		
★ 네팔			
카트만두	센터		
	977-1-254-481		
	chinghai_kathmandu@hotmail.com		
	Mr. Ajay Shrestha		
	977-1-473558		
	ajaystha@hotmail.com		
포카라	센터		
	977-61-28455		
	chinghai2000pokhara@hotmail.com		
	Mr. Bishnu Neupane		
	977-61-21201		
	neupanebishnu@hotmail.com		
	Mr. Shiva Bastola		
	977-61-28255		
	pokharacenter@hotmail.com		
	Mr. Raj Kumar Lama		
	977-61-31413		
★ 필리핀	마닐라 센터		
	632-842-8828		
	manilach@hotmail.com		
★ 싱가포르	센터		
	65-6741-7001		
	chinghai@singnet.com.sg		
	연락인 사무실		
	65-6846-9237		
★ 스리랑카			
콜롬보	Mrs. Suranganie Dayaratne		
	94-1-770927		
	jean@sol.lk		
★ 태국			
방콕	센터		
	662-674-2694		
	bkk_c@hotmail.com		
	Ms. Laddawan Na Ranong		
	662-5914571		
	edasnlad@samsorn.stou.ac.th		
Mr. Wu Peir Yuan	66-1-8248294		
		*** 유럽 ***	
		★ 오스트리아	
		비엔나 센터	Chinghai@A1.net
		Mr. & Mrs. Nguyen Van Dinh	43-2955-70535
		Mr. Shih-Tsung Lu	43-664-3909200
			sound@gmx.at
		★ 벨기에	
		브뤼셀	Mr. Hugo Berton
			32-16-400148
			hugo_berton@hotmail.com
		★ 불가리아	
		소피아	Mr. Ruslan Staykov
			359-2-575358
			oldruslan@yahoo.com
		플로브디	Mrs. Miglena Bozhikova
			359-32-940726
			chinghaiplovdiv@mail.bg
		★ 체코	
		프라하	센터
			42-02-6126-3031
			prague-center@chinghai.cz
			42-0-608-265-305
			chinghai@chinghai.cz
		★ 크로아티아	
		Mr. Zeljko Starcevic	385-51-251081
			zeljko@mindless.com
		연락인 사무실	45-66-190459
		★ 덴마크	
		★ 핀란드	
		헬싱키	Ms. Luong Hoang Hanh
			358-9-8537455
			hoanghanh@jippii.fi
			Ms. Anne Nystrom
			358-9-793902
			anne.nystrom@surfeu.fi
		★ 프랑스	
		파리	센터
			33-1-4300-6282
			Ms. Lancelot Isabelle
			33-1-4030-1174
			ilancelot@celestialfamily.net
			Ms. Ngo Thi Huong
			33-1-4376-1453
		몽펠리에	Mr. Nguyen Tich Hung
		아르데슈	33-4-67413257
			Ms. Reynet Jeanine
			33-4-75376232
		★ 독일	
		베를린	센터
			49-30-3470-9262
			berlincenter@hotmail.com
			Mr. Christian Bastwoeste
			49-30-3470-9262
		뒤셀도르프	연락인 사무실
			49-201-5809-816
			49-174-5265242
			ngoc-thao.nguyen@gmx.de
			dusseldorfcenter@hotmail.com
		함부르크	연락인 사무실
			49-581-15491
			HamburgCenter@gmx.de
		뮌헨	Ms. Kang Cheng
			49-89-3616347
			Ms. Johanna Hoening
			49-8170-997050
			ChingHai@aol.com
		★ 그리스	
		아테네	Mr. Eric Raza
			30-01-6923-133
			Razahidah@hotmail.com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Mr. Nguyen Ngoc Trung 31-294-41-9783
Vothuong5@cs.com
Mr. Marcel Mannaart 31-72-5070236
m.mannaart@planet.nl

★ 헝가리

부다페스트 센터 361-363-3896
heaven.bud@mail.matav.hu
Mr. Lux Tamas 36-309-611994
Ms. Dora Seres 36-1379-1924
지을 Mr. Lehel Csaba 36-96-456-452
clehel@freemail.hu

★ 아일랜드

더블린 Mr. & Mrs. Bernard Leech 353-1-6249050
bernardleech@unison.ie

★ 노르웨이

오슬로 Mr. Nguyen Ngoc Tai 47-22-612939
norwayqy@online.no

★ 폴란드

슈체친 Mrs. Grazyna Plocinizak 48-91-4874953
바르샤바 Mrs. To Soszynska 48-22-6593897
quanyin_pl@yahoo.com
로드츠 Ms. Lukaszewska Mariola 48-42-6860037
czakra@interia.pl

★ 포르투갈

리스본 Mr. Helder Hen Keon Kong 351-21-920-4118
lisbon_center@hotmail.com
Mrs. Deborah e dos Santos 351-0-96-618-7249
quanyindaugther@yahoo.co.uk

★ 러시아

모스크바 Mrs. Leera Gareyeva 7-095-732-08-32
boulgakov@tri-el.ru

★ 슬로베니아

Mr. Rastislav Alfonz Kovacic 386-35-814981
dbk@siol.net

★ 스페인

마드리드 센터 34-91-5470366
Ms. Lidia Kong 34-91-7756670
말라가 Mr. Wang Ya-King 34-95-2351521
발렌시아 Ms. X.C. Wang & Ms. X.C. Yang 34-96-3336208
Vegetarian House 34-96-3744361
Mr. Yu Xi-Qi 34-96-3726401
valenciachinghai@yahoo.es

★ 스웨덴

엔겔홀름 Mrs. Luu Thi Dung 46-431-26151
hang.nguyen@spray.se
오레 Ms. Viveka Widlund 46-647-32097
widlund@hem.utfors.se
말뫼 Mr. & Mrs. John Wu 46-40-215688
wu.john@telia.com
스톡홀름 Mr. Mats Gigard 46-8-882207
mats.gigard@telia.com

★ 스위스

제네바 Ms. Feng-Li Liu 41-22-7973789
fengli@ilo.org
Ms. Klein Ursula 41-22-3691550

★ 영국

스토크온트렌트 Mrs. Janet Weller 44-1782-414989
l.wellers@ntlworld.com

런던 센터 44-208-3742743
연락인 사무실 44-207-4731421
pnl@matters19.freemove.co.uk
서리 Mr. Hu Tchang Rong 44-1293-416698
stmchwo@hotmail.com

★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Mrs. Annette Lillig 44-131-6660319
lillig@btinternet.com

*** 오세아니아 ***

★ 호주

애들레이드 Mr. Leon Liensavanh 618-8332-6192
leonadelade@hotmail.com
브리즈번 센터 briscentre@hotmail.com
Mr. Gerry Bisshop 617-3847-1646
Mrs. Tieng Thi Minh Chau 617-3715-7230
ctieng@telstra.com
Mr. & Mrs. Yun-Lung Chen 617-3344-2519
마이런 베이/ 노던 리버스 Mr. & Mrs. Ray Dixon 612-6689-1282
rayandjulie@linknet.com.au
캔베라 Mr. & Mrs. Khanh Huu Hoang 61-2-6259-1993
smcanbra@cyberone.com.au
멜버른 센터 Melbsmch@aol.com
Mrs. Rosemary Nagtegaal 61-3-9307-6982
Mr. Pham Van Bon 61-3-9470-4573
Mr. Alan Khor 61-3-9857-4239
퍼스 센터 61-8-9242-1189
Mr. David Robert Brooks 61-8-9418-6125
daveb@iinet.net.au
Mr. Ly Van Tri 61-8-9244-7661
시드니 Mr. Eino Laidsaar 61-2-9477-5459
einoforquanyinsydney@yahoo.com
Mr. Hong Bo 61-2-97887588
hongbo_huang@hotmail.com

★ 뉴질랜드

오클랜드 Mr. Anton Toia 649-419-4470
nzanton@yahoo.com
Mrs. Noelyne No Thi Ishibasi 649-277-9285
takahide@xtra.co.nz
Mrs. Chang-Wu Wong 649-534-0986
크라이스트처치 Mr. Michael Lin 643-343-6918
chaomim@hotmail.com
해밀턴 Mr. Glen Vincent Prime 647-849-4442
647-858-3355
nelson Ms. Sharlene Lee hamnzcont@yahoo.co.nz
64-3-5391313
shale@ihug.co.nz
타우랑가 Ms. Joy Daniels 647-544-5268

대한민국

한국 관음법문 전파 10주년 기념식

한국 뉴스그룹 (원문 한국어)

2002년 3월 17일, 한국 입문자들은 상주에 위치한 영동 센터에 모여 한국 관음법문 전파 10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한국의 각 센터 동수들은 매달 첫째, 셋째 주에 영동 센터에 모여 단체명상을 하는데, 이번 선일에는 특별한 의미가 하나 더 더해졌다. 2002년 3월은 스승님께서 한국에서 첫 강연을 하신 지 10년째가 된다. 마침 그 당시 첫 강연을 준비했던 관음사자가 한국에 와 있어서 이 의미 깊은 기념을 함께 축하할 수 있었다.

이 큰 행사를 위해 한국 각지에서 모인 동수들은 노래와 시 낭송, 춤을 공연해 모두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선사했다. 또 10년 전 스승님의 첫 강연에서 입문한 동수들을 위한 특별한 시간도 가졌는데, 그들은 소감을 통해 스승님을 만날 수 있었던 행운에다 스승님을 따라 수행까지 할 수 있게 된 데 무한한 감사를 드렸다.

한 동수는 스승님의 안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시 낭송을 통해 전했다. 그녀는 결보기엔 여의치 않은 상황 속에서도 스승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 가장 알맞고 지혜롭고 자비로운 방법으로 가장 완벽한 안배를 하신다고 말했다. 우리는 이 시를 들으며 스승님의 사랑과 축복을 통해 얻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결실을 다시 한 번 떠올렸다. 스승님의 돌보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공연이 끝나 갈 무렵, 10년 전에 입문한 나이 드신 사저 한 분이 체험담을 얘기했다. 입문하기 3년 전 한 절에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그 사저는 노란 옷을 입은 눈부신 존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당시에는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그러나 입문을 하고 3년 뒤 포모사 단체명상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는데, 바로 그때 스승님은 그와 똑같은 노란 옷을 입고 나오셨다. 그제야 그녀는 비전에서 본 그 존재가 스승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사저의 이야기는 전세계의 수많은 입문자들이 그와 같은 체험을 하기 때문에 우리들 중 많은 사람



한국 동수들이 영동 센터에 모여 한국 관음법문 10주년을 기념하다.



관음사지와 입문한 지 10년 된 동수들이 기념 케이크를 자른다.

들에겐 그다지 새로울 게 없지만, 스승님이 하시는 모든 일 그의 이면에는 항상 특별한 의미가 있음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깨우쳐 주었다. 스승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실로 엄청나고 한량없어 가늠할 길이 없다! 스승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스틴

오스틴 센터 건설에서 체험한 신의 은총

로버트 위안 사형/ 미국 텍사스 (원문 영어)



예전에 스승님이 수리하신 명상 홀. 7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오스틴 센터에서 가장 명상하기에 좋은 곳이다.

1995년 7월, 스승님은 6명의 장주들과 함께 갑작스레 오스틴 센터를 방문하시곤 오스틴 센터 개발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셨다. 그로부터 7년 후 우리 동수들은 센터에서 다양한 일을 추진해 나가면서 영적인 발전을 계속하고 있다.

스승님이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일은 쓸모 없는 잡동사니와 쓰레기를 깨끗이 치우는 일이었다. 그 '쓰레기'에는 우리들의 변명과 헌신 부족, 게으름도 포함되어었다. 스승님은 이 일을 통해 우리의 나약함과 변명하기 좋아하는 품성을 지적하셨고, 그 결과 우리는 수행상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었다. 이

외에 스승님은 낡은 소 우리와 나무 그루터기를 치워 주변을 시원스레 정리하셨는데, 이것을 보면서 그런 환경처럼 우리 또한 삶 속에 많은 장애를 갖고 있지만 시간을 내어 그것을 치우지 않고 산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면 그것들은 곧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 우리의 개념이나 판단을 흐리게 만든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우선 자기 내면의 쓰레기를 정리하고 내면의 장애물을 제거해야만 깨끗한 길을 걸어 궁극적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후 5주 동안 스승님은 창의력을 발휘해 영망이 된 구조물을 쓸

모 있는 작품으로 바꾸셨다. 무너진 저장 창고는 아름다운 정자로 바뀌어 수년 동안 동수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 요즘에도 거기에서 밤새 명상하거나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하며 오후의 한가로움을 즐기는 동수들을 볼 수 있다. 이제 모습이 바뀐 정자에 앉아 있으면 만물은 그 나름대로의 타고난 특질이 있으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의 진정한 아름다움과 용도를 찾아내는가에 달려 있다는 스승님의 가르침에 대해 깨닫게 된다.

한번은 한담을 나누던 중, 스승님은 몇 군데 장소를 골라 그곳에 대나무를 심으라고 하셨다. 그리고서

오스틴

3, 4년이 지났을 때 우리는 그것이 정말 유용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대나무는 오스틴 센터에 있는 유일한 외래 식물이지만 무성하고 싱싱하게 잘 자라났다. 다른 식물로 그 지역을 다양하게 꾸며 보려고 시도해 봤지만 스승님이 권해 주신 대나무만큼 잘 자라지 못했다. 대나무는 오스틴 센터에 평온하고 고요한 기운을 가져다 주면서 또한 이웃의 시선을 차단해 보호된 느낌을 주며, 또한 이 황량한 사막지역에 그늘과 수분을 공급해 주변 지역들이 확실히 시원하게 느껴졌다. 만물의 유용한 특성을 파악하고 활용해 그 잠재력을 완전히 끌어내는 스승님의 능력에 감탄을 금할 수 없다.

스승님은 또 넓은 외양간을 3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명상 홀로 개조하셨다. 우리는 거기에 자갈을 깔았는데, 입문식 때는 야외용 카펫을 깔아서 동수들이 편안하게 명상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은 실내 명상 홀이 생겼지만 주말이면 몇몇 부지런한 동수들은 야외 명상 홀에서 명상하며 내면의 체험을 즐긴다. 또 입문식을 치르는 주요 장소이기도 하다.

스승님은 떠나시며 우리에게 당신이 설계하신 초승달 별관을 완성

하라고 지시하셨다. 이 건물은 원래 소를 위한 물탱크였는데, 나중에 스승님이 벽의 일부를 잘라내셨다. 수년이 흐르는 동안 우리는 스승님으로부터 작업을 완성하도록 수차례나 말씀을 듣고서야 겨우 용기를 내어 일을 진행했는데 완성하는데 6개월 이상이 소요됐다. 이 작업은 그때까지 해왔던 개조작업 중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 우리는 땀별을 피해 일하기 위해 종종 밤샘 작업을 하곤 했다. 별관 앞에는 3천 명 수용 규모의 잘 깎인 잔디밭이 펼쳐져 있어서 나중에 스승님이 돌아오실 경우 공연을 펼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이 건물에는 3개의

초승달이 새겨져 있는데, 해가 건물을 비추면 네 번째 초승달이 내부 바닥에 나타난다.

스승님은 그 해 8월에 오스틴을 떠나시며 우리에게 수행하며 계속 성장할 수 있는 훌륭한 모범을 남겨 주셨다. 그 후 몇 년 동안 많은 동수들이 다른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 이곳에 창작품을 남겼는데, 식당은 많은 동수들의 창조적인 노력이 들어간 그 좋은 예다. 어느 날 동수들은 식당을 색칠하기로 결정하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큼지막한 영적인 그림을 그렸다. 또 바닥에 타일을 붙이고 야외 테이블과 공원 벤치를 놓아 식당 홀을 손님



조용하고 은밀한 대규모 야영장은 수천 명의 동수들이 텐트 치기에 충분하다.

오스틴

들을 위한 응접실로 바꿔 놓았다. 최근에는 주방 내부를 수리하고 전문적인 주방 기구들을 갖추었다.

요즘에는 연로한 동수들을 위한 '천상의 꿈 방갈로'를 건설하고 있다. 이 작은 건물들은 방충 시설을 갖추고 거실도 공기 소통이 잘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방갈로에서 명상하는 동수들은 이 건물을 세운 동수들의 사려 깊은 사랑과 헌신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오스틴 센터에서 점점 많은 일들

을 추진해 나갈수록 우리는 스승님을 더 가까이 느끼고 스승님의 가르침을 보다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본보기로 남아 있는 스승님의 작품들을 볼 때마다 창조력과 조화의 힘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더 많이 할수록 우리 내면의 힘과 창조력, 지혜를 깨닫게 되고 더 큰 자신감과 겸손을 배우게 된다.

매주 일요일마다 동수들은 조용히 모여 단체명상을 하고, 그 후

엔 주방에 모여 점심을 먹고 손님들과 얘기를 나누거나 바쁜 세속으로 돌아가기에 앞서 센터의 특별한 분위기를 즐긴다. 오스틴 센터에서는 소속감도 들지만, 동시에 자유롭고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느낌도 얻는다. 스승님의 은총과 축복으로 가득 찬 이처럼 성스러운 수행장소를 갖게 되어 정말 감사할 따름이며, 세속과 떨어진 이 은밀한 공간에서 신의 무한한 사랑과 빛에 흠뻑 젖을 수 있을 것이다.

'예술과 영성' TV 프로그램 비디오 테이프

이메일: art&spirituality@Godsdirectcontact.org

팩스: 1-413-751-0848 (미국)

SM 경서조

이메일: divine@Godsdirectcontact.org

팩스: 1-240-352-5613/ 886-943-802829

(스승님의 책을 각국 언어로 번역하실 분은 연락 바랍니다.)

수행 상담소

이메일: lovewish@Godsdirectcontact.org

팩스: 886-946-730699

LA센터 경서팀

이메일: la_bookstore@yahoo.com

팩스: 1-909-738-9992

SM 보석 주석회사

이메일: smcj@ms34.hinet.net

전화: 886-2-87910860

팩스: 886-2-87911216

뉴스그룹

이메일: lovesrc@Godsdirectcontact.org

팩스: 1-801-7409196/ 886-946-728475

포모사 타이베이 창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

이메일: smchbooks@Godsdirectcontact.org

전화: (886) 2-87873935

팩스: (886) 2-87870873

대한민국 창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

이메일: chinghai@unitel.co.kr

전화 : 031-772-9250

팩스: 031-772-9258

(영어나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실 수 있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

대한민국 창하이 무상사 무상예술 연락처

이메일: hounmri@unitel.co.kr

전화: 054-532-5821

팩스: 054-532-5822

(천의, SM 보석, 해피요기, 만세등, 그림... 등의 주문을 원하시는 분은 영동 센터로 문의해 주십시오.)



◀ 동수들의 창의력 풍부한 그림으로
오스틴 센터의 주방과 식당은 천국이 되었다.



▲ 초승달 별관 - 스승님의 사랑 어린 제
안의 표식이자 동수들의 자아 성장의
흔적이기도 하다.



▲ 데크 - 차를 마시며 자연을 즐길 수
있는 한적한 장소.



▲ 부드럽게 흔들리는 대나무 사이에 위
치한 소박한 정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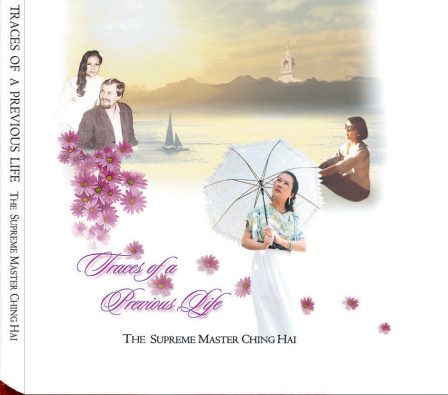
스승님은 오스틴 센터를
수행의 천국으로 개발하시며
우리 모두에게 생생한
모범을 보여 주셨다



▲ 선인장 꽃밭에 평소 보기 드문 꽃들이
만발해 대중의 눈을 즐겁게 하다.



▲ 천상의 꿈 방갈로 - 오스틴 센터를 방문하는 입문자들에게 편안한
잠자리와 명상 공간을 제공한다.



지난 삶의 발자취 (영문판)

칭하이 무상사의 시집 『지난 삶의 발자취』가 새로 출간되어 더할 수 없이 기쁜 마음으로 소개합니다. 어울락어 원작인 이 진귀한 시집이 이번에 처음으로 영문판으로 발간되어 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갈망에 부응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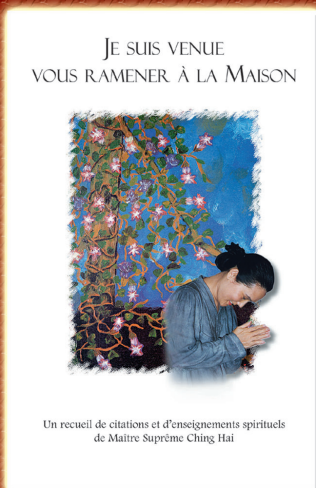
『지난 삶의 발자취』는 칭하이 무상사가 히말라야로 구도 여정을 떠나기 전 썼던 시들로서, 혼란스럽고 무상하며 사랑과 전쟁이 교차하는 세속에 존재한, 자비롭고 고귀한 한 영혼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저자의 시에는 일상에서의 분투와 희망, 고통과 아름다움의 순간들이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나, 부드러운 황금 달빛이 되고 싶네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 사랑을 따라
-사랑의 노래 II 에서-

이 시집을 천천히 감상하노라면, 그 의미 깊은 시구 속에서 영원한 행복과 자유를 노래하는 영혼의 빛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Traces of a
Previous Life*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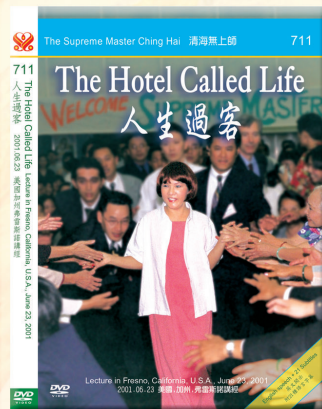
<프랑스어>

나는 여러분을 고향으로
데려가기 위해 왔습니다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DVD

<영어 + 21개 국어 자막>

711 인생이라는 호텔
미국 캘리포니아 프레스노 강연
2001년 6월 23일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The truth we all know, we just forget it.
In meditation, we come face to face with the purpose of our
life. It is why we must find the truth, why we must practice meditation
and why we must believe in God."

<영어 + 22개 국어 자막>

582 수행의 길을 굳게 결심하라
호주 시드니 국제 선사 (2부)
1997년 5월 9-12일